

유학생 및 과학자 대상 해외공직설명회 23일 MIT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대적으로 본국 정부 공무원직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유학생 및 한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공직설명회가 5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MIT에서 개최된다. 24일에는 브라운대학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국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표에 따라 보스톤을 시작으로 미국 동부, 중부 그리고 일본 지역 주요 거점 대학에서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에도 보스톤 대학 및 하버드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학생 및 한인과학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일정 정도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5급 경력직 채용 선발 우대요건에 '글로벌 인재'가 포함된 경우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모집 인원대비 26%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장급의 경력직은 2016년 218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올 6월부터 실시 예정인 경력 5급·7급 개방형 직위 채용분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인

재데이터베이스(DB) 등록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도 안내한다.

학부생들에게는 5-9급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영사 7급 등에 관한 응시일정과 채용규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채용분야에 대한 모집 공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찾아가는 해외 공직설명회는 글로벌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공직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인사혁신의 일환이다" 라고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능한 글로벌 인재들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보스톤 이외에도 24일 프로비던스 브라운대, 25일 뉴욕총영사관, 26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시 5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월요일, M.I.T Classroom 4-257

5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Metcalf Research BD Friedman Auditorium

hsb@bostonkorea.com

생각의 혁신,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정부
korea.go.kr

찾아가는
해외
공직 설명회

인사혁신처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유학생 및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시 및 장소(미국)

구분	행사 일시	참석 대학	행사 장소
동부	5. 23(월) 18:00 ~ 19:00	M.I.T	Classroom 4-257
	5. 24(화) 18:00 ~ 19:00	브라운대	Metcalf Research BD Friedman Auditorium
	5. 25(수) 18:00 ~ 19:00	콜롬비아-뉴욕대	뉴욕총영사관 8F 대회의실
	5. 26(목) 18:00 ~ 19:00	펜실베이니아대	Hoxworth Hall 223 Coffee room
중부	5. 23(월) 18:00 ~ 19:00	워싱턴대	Memorial Union, 4F Council room
	5. 24(화) 18:00 ~ 19:00	노스웨스턴대	Harris Hall 107
	5. 25(수) 18:00 ~ 19:00	시카고대	Cobb Lecture Hall C115
	5. 25(수) 12:00 ~ 14:00	UNC	College of Medicine Research BD room 6075
	5. 26(목) 18:00 ~ 19:00	LRJC	Mini Union Conference room 217

참석대상

-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 학/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학위 취득예정자, Post doc., 원지 기업 경력재직자 등

참석 문의

- 경력경쟁채용 : 재외한국공관급 직위, 인간관계 5급/7급, 부처 자체 경력채용
- 공개경쟁채용 : 5급/7급/9급 일반행정직, 공업직 등 직류별 채용

*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는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을 예정입니다.

* 참석 관련 문의 : 학교별 유학생회 가입협력 담당자 또는 인사혁신처 ☎044-201-8214, insagip@korea.kr

오바마 행정부 오버타임 행정명령

▶▶1면에 이어서

것이 도를 넘었다. 이제는 균형을 회복해야 할 시간"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좌파적 성향의 경제 싱크탱크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임금 정책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측면의 효과도 있다. 먼저 노동 분쟁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업주들의 경우 오버타임 상한까지 연봉을 끌어 올리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 가장 나쁜 면은 정규직 연봉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회를 통해 이번 행정입법안을 막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탐 페레스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근로자들은 "급여가 올라가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든지 두가지 중의 하나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하프(HARP), 올해 연말에 마감되는 오바마 정부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정부 재융자 지원 프로그램 하프(HARP)가 올해 말에 마감된다. 상당수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융자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이용을 미뤄왔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주택소유자들은 마감 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프(HARP, Home Affordable Refinance Plan)는 2009년 3월, 오바마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플랜(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몇 번의 변경과 연장 끝에 올해 말인 2016년 12월 까지 운영된다.

하프는 주택의 가치보다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 비율이 높은 경우의 대출자들을 돕기 위해 실행되는 플랜이다. 즉, 집을 살 때 비싼 값을 치렀으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집값이 폭락하면서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일반적인 재융자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에게 매우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지원해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일

년에 평균 3,000 달러의 지불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짧은 대출기간으로 바꾸거나 고정된 금리의 모기지로 바꾸는 식으로 혜택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단, 하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대출은 패니 매키(Fannie Mae) 혹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보증이어야 하며,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최근 12개월간 한 번 이하의 연체기록이 있거나 6개월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대출금 대비 집값 비율(LTV)이 80%이상이어야 한다.

정책 발표 초기, 주택 재융자 대상의 제한적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나, 2012년 HARP 2.0을 발표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며 승인률이 대폭 상승했다. HARP 2.0은 특히 부채비율 125% 상한선을 없애 소위 말하는 강통주택들도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재융자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재융자 비용은 대폭 삭감하거나 거의 면제해 주도록 했다.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약 340만 명이 하프를 통해 재융자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며, 여전히 429,379명 정도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론오피서 에이저 리는 “보스턴 지역의 경우 2013년 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10%에서 20%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고 말하며

본인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현재 모기지 회사에 연락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하프를 사칭한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하프 재융자 프로그램은 사전에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ttp://harp.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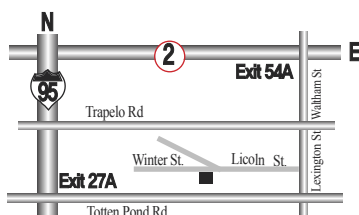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 영화 <귀향> 상영

위안부 동아리 <나비> 주최, 5월 27일 학교정 강당에서 상영 예정
 상영 당일 많은 한국 일러스트 작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러스트북도 판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튼 사우스 하이스쿨의 위안부 동아리 나비는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향>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학교 강당에서 상영한다. 영화 상영료는 \$7이다.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김예나 학생은 “일러스트북 판매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렇게 '귀향' 영화를 미국에 거주하셔서 아직 보지 못한 한국인 분들 또한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이메일을 통해 당부했다.

김예나 학생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위안부 일러스트북 인쇄 또한 마무리 돼서 영화상영 당일 학교 강당 앞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책 가격은 권당 \$15이다.

위안부 동아리 나비는 많은 한국 일러스트 작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편집을 완성했지만 인쇄 목표 금액인 \$3,000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껏 출판이 연기되어 왔다.

editor@bostonkorea.com

평통 통일안보 비전대회 예선, 구경오세요

평통, 6월 4일 대회 일반인들에게 공개
 10개팀 참가 본선행 티켓 두고 경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통이 주관하고 국방부가 주최한 통일안보 비전대회 예선전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평통보스톤지역협의회가 주관해 6월 4일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되는 이번 보스톤지역예선에는 총 10개팀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다. 지역대회 우승자는 상금과 함께 한국행 본선 출전 티켓을 획득한다

한선우 회장은 “1등이 선발되면 본선 진출까지 전문가가 이 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할 예정”

이라고 밝힌바 있다.

평통 안보비전대회는 2-5명으로 편성한 팀이 프레젠테이션, 토론, 뮤지컬, 콩트, 연극, 댄스 등 모든 종류의 퍼포먼스를 통해 안보와 통일 비전을 표현하면 된다. 대회는 6월 4일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한다.

문의는 평통 윤미자 (mijayun@hotmail.com), 조진행 (contact.bostonnuac@gmail.com) 위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용량정 오일정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무료배송 다량주문 시 별도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로도 배송 가능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법률 및 한국국적법 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보스톤 총영사관, 보스톤변호사회와 협조하여 무료 법률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했다. 뉴햄프셔 무료 법률 설명회는 올해로 5번째다.

1부 순서에서는 보스톤 총 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오진관 영사와 국적 및 병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김원광 행정원이 참가해 설명회를 가졌다. 영사관측은 준비한 국적법 관련내용 영상을 통해 국적이탈/상실/회복, 이중국적, 여권 사용, 한국내 재산권 행사 등 다양한 관련주제를 질의응답형식으로 소개했다. 해당 영상이 상영 후, 오진관 영사와 김원광 행정원이 참가자들로부터 더 자세한 질문을 직접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장우석 변호사의 주도로 보스톤 변호사회 소속 장우석, 성기주, 박영욱, 김만희 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법률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우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뉴햄프셔 무료 법률 세미나를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법 관련내용을 강의하였고, 박영욱 변호사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OPT, 스폰서, 취업비자, 인터뷰, 등을 강의하였다. 김만희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전하였고, 장우석 변호사는 자

동차보험 및 경찰과 대면시 대응방법 등을 설명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 속에서 열띤 진행된 세미나는 예정된 2시간을 넘겨서 7시 15분에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세미나 후에 모든 참석자들은 순순자 권사의 후원으로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에서 준비한 육개장과 김연수 권사가 후원한 각종 한식반찬, 그리고 뉴햄프셔 한인회 김수홍 부회장이 후원한 호두찰떡, 과일, 커피 등을 나눴다.

이와 동시에 한 쪽 테이블에서는 보스톤 총영사관의 순회영사업무가 진행되었고, 동포들은 개별적으로 김원광 행정원과 상담하고 업무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은경 한인회장은 “한인회 법률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총영사관의 오진관 영사님과 김원광 행정원 및 뉴잉글랜드 한인변호사회에서 오신 네 분의 변호사님들에게 감사하다” 고 밝혔다.

조희장은 또 “참가하신 한인들이 총영사관의 영사서비스, 국적법 관련 설명, 변호사들의 법률 강의에 대해 정말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 좌측부터 성기주 변호사, 장익한 목사, 김수홍 한인회부회장, 조은경 한인회장, 오진관 영사, 장우석 변호사, 권혁진 목사, 김원광 행정원, 박영욱 변호사, 김만희 변호사



자동차 보험 가입시 법적 보호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우석 변호사



이민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기주 변호사



국적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오진관 영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제3회 총영사배 태권도대회에 선수들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총영사배 매사추세츠 태권도 대회 400선수 기량 겨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제3회 총영사배 태권도대회에 선수들을 비롯해 코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 모두 15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5일 매사추세츠 주 소재 그래프톤 하이스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400여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경기는 품새, 격파, 겨루기, 데모 팀 경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경기에 앞선 개회식에서 엄성준 총영사의 환영사, 매사추세츠 남팜(Nam Pham) 경영개발부 차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엄성준 총영사는 태권도협회를 치하하고 시합에 나선 선수들을 격려했다. 태권도를 배웠던 남팜 차관은 자신의 태권도 경험을 비추어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공식 행사 말미에는 장구춤과 진도아리랑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

기도 해 선수들과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장 정제형 관장은 “보스턴 총영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협회 주최의 태권도대회는 올해 11월 5일과 6일에 열릴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라

전 CBS 임원 니나 테슬러, BU 졸업식서 축하 연설
6600여명의 졸업생, 2만여명의 가족과 임직원 축하속 졸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두려움은 인생에 높은 동기 부여를 주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성차별이 심한 방송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한 니나 테슬러의 연설에 BU학생들은 환호했다.

니나 테슬러, 전 CBS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15일 진행된 보스턴 대학 졸업연설에서 방송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졸업 후 불안감을 이겨내는 법을 조언했다.

니나 테슬러는 보스턴 대학 동문(미술대학 '79)으로서 후배들이 공감할만한 논리적인 조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CBS에 재직 당시 ‘굿 와이프’, ‘빅뱅이론’, ‘CSI’ 등을 제작해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성사장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테슬러 전 사장은

“때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전공이나 경력과는 관계 없는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지금 겪는 어떠한 두려움도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20대에는 어떤 실수도 실패로 남지 않는다” 며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겪게 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시카고 출신의 졸업생 올가 랙키(신경학과)씨는 “그녀도 우리처럼 졸업할 때 아무것도 정해진 미래가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한 데브라 마커스(심리학)씨는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보스턴 대학으로 편입하며 느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7면으로 계속

이용화 박사 고혈압 특별 건강세미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새생활센터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톤햄 소재 센터 (4 Spring St. Stoneham, MA02180)에서 고혈압에 대한 특별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건강세미나 1부에서는 내과의 이용화 박사가 고혈압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특별 강연을 갖는다. 2부에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 체조, 운동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3부에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강 요리

전시 및 시식회가 진행된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고혈압 증상을 느끼거나, 자신이 고혈압인지 알고자 하는 모든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 대상이다. 세미나 후에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한인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한하여 오렌지 라인 오크그

로브(Oak Grove) 역에서 무료셔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스턴새생활센터는 지난 20여년간 무료진료, 독감백신 접종 등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 세미나 시간 : 5월 21일 오후 2시 ~ 5시

주최 및 안내 : 보스턴 새생활 센터/
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전 CBS 엔터테인먼트 사장 니나 테슬러는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 하지 말것을 졸업생들에게 주문했다 (출처: BU Today)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축하하고 있다(출처: BU Today)



15일 졸업식에는 약 6,600여명의 졸업생들이 2만여명의 가족, 교수, 임직원들의 축하속에 졸업했다

'유리천장' 극복한 대선배 경험담에 졸업생들 자신감 얻어

▶▶6면에 이어서

)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이고 세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웠다" 며 그가 식사 때 마다 30분 씩 그의 친구들과 지적 대화를 가졌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스턴 대학은 매년 졸업식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생이 졸업연설을 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작년 졸업식에서는 휴학 중 한국에서 군대와 방송국에서 탈북자 관련 방송 PD로 일하고 9년만에 졸업장을 받은 한국인 이승준(문리대학)씨가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바 있다. 올해로 제 143회를 맞은 이날 졸업식은 6,600명 졸업생과 2만명의 관객과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두 시간여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졸업 축하 연설자 니나 테슬러를 비롯하여 캐리 헤슬러-래드렛 (미국 평화 봉사단장),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 트레비스 로이 (트레비스 로이 재단)가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itshunne@bostonkorea.com

6·7월 한국인 메이저리거 대거 보스턴 방문

AL는 김현수의 오리올스 9회로 가장 많아
NL선수 소속은 한 명도 없어, 내년을 기약해야



지난달 초 부상자명단에 오른 추신수는 (34, 텍사스 레인저스) 21일 복귀를 눈앞에 두고있다

2016 시즌 월별 한국인 메이저리거 보스턴 방문 일정

<6월>
14일, 15일, 16일 : 볼티모어 오리올스 (김현수)
17일, 18일, 19일 : 시애틀 마린스 (이대호)

<7월>
4일, 5일, 6일 :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21일, 22일, 23일, 24일 :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

<9월>
12일, 13일, 14일 : 볼티모어 오리올스 (김현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김현수, 이대호, 추신수, 박병호,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상을 보스턴에서 곧 지켜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를 방문한 한국인 메이저리거는 추신수가 전부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다수 보스턴을 찾는다.

박병호, 오승환이 팀내 주전의 입지를 굳히고 있고, 이대호, 김현수도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회 때마다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자 명단에 든 추신수도 21일에 메이저리거로 복귀할 것을 알렸다. 강정호 선수도 이미 부상에서 회복하여 지난 시즌과 같은 불방망이를 뽐내고 있다. 펜웨이에서 상대팀으로 방문할 한국인 선수들을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없겠지만 한국인 선수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올해는 아메리칸 리그 소속의 선수들만 보스턴 찾아

올해 펜웨이파크를 가장 많이 찾을 선수는 김현수다. 그의 소속인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레드삭스와 같은 아메리칸리그(이하 AL)면서 같은 동부지구 소속이기 때문에 예정된 경기가 많다. 레드삭스는 지난달 11일 오리올스와 홈 개막전을 치른바 있다. 오리올스는 올해 펜웨이파크에 총 9회 방문한다.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할

예정의 한국인 소속구단은 박병호가 소속된 미네소타 트윈스다. 트윈스는 AL 중부 소속으로 레드삭스와는 7번의 경기를 치르는데 그중 4경기가 레드삭스의 홈경기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는 (시애틀 마린스) 각 3

회씩 보스턴을 방문한다. 내셔널 리그의 오승환과 강정호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속한 아메리칸 리그와의 일정상 올해는 보스턴을 찾지 않는다. LA 에인절스의 최지만은 12일 방출 대기에 올라 미래가 불투명하다.

itshunne@bostonkorea.com



MLB 데뷔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병호(30, 미네소타 트윈스)는 홈런 9개를 기록하며 팀내 4번타자에 오른 신임을 얻고 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교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검토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올 여름, 무료 야외영화 상영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여름저녁, 보스톤 빌딩숲속 정원과 찰스강변에서 상영되는 무료 야외영화의 스케줄이 공개됐다. 7월과 8월의 토요일 저녁에는 프루덴셜 센터의 사우스 가든에서, 6월 말부터 8월 말의 금요일에는 해치 쉘에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일몰에 맞춰 상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미니언즈, 인사이드 아웃 등의 박스오피스 흥행작품이나 메리 포핀스, 오즈의 마

법사와 같은 모던 클래식 영화로, 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다.

자리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해가 지기 전부터 도착하는 것이 좋다. 맛있는 간식거리와 잔디밭 위에 깔 수 있는 담요나 야외용 의자를 챙겨서 가는 것 또한 잊지 말자.

sun@bostonkorea.com



프루덴셜 센터

사우스가든(South Garden)에서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무료 야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 시작은 6시부터다. 영화가 상영되는 사우스가든은 프루덴셜 빌딩 내부에 위치해 있다.

7월 2일
미니언즈
(Minions, 2015)
애니메이션, 코미디
전체 관람가



8월 6일
메리다와 마법의 숲
(Brave, 2012)
애니메이션, 판타지
전체 관람가



7월 9일
오즈의 마법사
(Wizard of Oz, 1939)
판타지, 뮤지컬
전체 관람가



8월 13일
주토피아
(Zootopia, 2016)
애니메이션, 액션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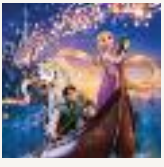
7월 16일
굿다이노
(The Good Dinosaur, 2016)
애니메이션, 모험
전체 관람가



8월 20일
벅스 라이프
(A Bug's Life, 1998)
판타지, 코미디, 가족
전체 관람가



7월 23일
라퐁젤
(Tangled, 2010)
애니메이션, 코미디
전체 관람가



8월 27일
매리 포핀스
(Mary Poppins, 1964)
코미디, 뮤지컬
전체 관람가



7월 30일
인사이드아웃
(Inside Out, 2015)
애니메이션, 코미디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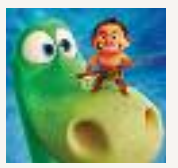
해치 쉘 Hatch Shell

찰스강변에 위치한 해치 쉘에서는 6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요일에 영화가 상영된다. 각종 이벤트는 6시에 시작한다. 그 전부터 무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해치 쉘 근처는 주차하기가 어려우므로 일찍 도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레드라인 MGH역이나 그린라인 알링턴 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이다. 날씨에 따른 이벤트 취소 문의번호: 617-787-7200, 해치 쉘 주소: 47 David G Mugar Way, Boston, MA 02108

6월 24일
미니언즈
(Minions, 2015)
애니메이션, 코미디
전체 관람가



8월 5일
굿다이노
(The Good Dinosaur, 2016)
애니메이션, 모험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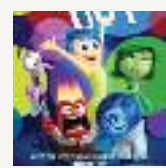
7월 15일
신데렐라
(Cinderella, 2015)
멜로, 로맨스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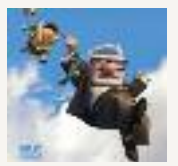
8월 12일
쥬라기월드
(Jurassic World, 2015)
액션, 모험, SF
12세 관람가



7월 22일
인사이드아웃
(Inside Out, 2015)
애니메이션, 코미디
전체 관람가



8월 19일
업 (Up, 2009)
가족, 모험, 코미디
전체 관람가



7월 29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Star Wars: The Force Awakens, 2015)
액션, 모험, 판타지
12세 관람가



8월 28일
앤티맨
(Ant-Man, 2015)
액션, SF
12세 관람가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뉴튼의 노부부, 평생 모은 컬렉션을 미술관에 기부

뉴잉글랜드지역예술의 방대한 자료 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싸고, 더럽고, 낡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작품을 위주로 수집해 온 뉴튼의 노부부가 자신들의 미술품 컬렉션을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 (Peabody Essex Museum)에 기증한다. 샘 (Sam)과 실라 로빈스 (Sheila Robbins)부부는 지난 60년의 결혼 생활동안 뉴잉글랜드 지방을 살살이 뒤지며 1000개가 넘는 작품을 모았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실라 로빈스(85)는 “외식을 할 돈으로 그림을 사려고 했다”며 자신들의 뉴튼 집 거의 모든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컬렉션에 대해 설명했다. 샘 로빈스(93)는 “작품들이 문명의 영원한 기록을 담고 있는 듯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저렴했다”고 말하며 “만약 우리가 이 작품들을 구하지 않았으면 누가 구했겠는가?”라고 덧붙혔다.

실제로 로빈스 부부의 수집활동은 무명작가를 찾아내고 오래되고 손상된 작품을 구하는 일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후손을 직접 추적하는가 하면, 한 작품을 단돈 10불에 주고 사서 복구하는데 천불을 들이기도 했다.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을 피해서 지하실, 다락방, 마구간 등을 뒤지며 지역의 풍경화, 정물화, 혹은 모더니즘 작가들의 회화작품을 사 모은 결과, 이들의 컬렉션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뉴잉글랜드 지방 미술의 방대한 자료가 되었다.

그 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화이트마

운틴 화가들의 작품이다. 19세기에 뉴햄프셔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400명의 풍경화가 그룹인 화이트마운틴은 당시 “관광 상품 그림”으로 무시받으며 수십 년간 인근의 허드슨 리버 스쿨과 비교 당했다. 허드슨 리버 스쿨이 유명해진 것은 뉴욕이 예술의 수도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처음 작품을 구입한 것은 샘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해외에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다. 1946년 50불을 주고 구입한 한 쌍의 풍경화에는 화이트마운틴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화이트마운틴에서 뛰어놀며 보낸 샘은 이 작품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그가 다니던 하버드 대학에서 미술사학 수업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미술사에 대해서는 2주라는 시간밖에 할애하지 않았다.”고 샘은 회고했다.

샘은 학기말 리포트에 미국예술의 가치에 대해 쓰며 대학 미술사부서의 유럽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교수님은 내 리포트를 돌려주며 AAA를 줬다. 하지만 교수님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그제야 나는 이 명작들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컬렉션에는 현재 미술시장에서 수십만 불에 거래되는 작가들인 로버트 스피어 더닝 (Robert Spear Dunning), 알프레드 톰슨 브리처 (Alfred Thompson Bricher) 존 조셉 네킹 (John Joseph Enneking), 그 외 에도 칼 내스 (Karl Knaths), E. 앰브로스 웹스터 (E. Ambrose Webster) 벤자민 챔프니 (Benjamin Champ-

ney)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랫동안 잊혀진 작가 마블 윌리엄스 (Mabel Williams)와 엘리자베트 해밀턴 텔러 헌팅턴 (Elizabeth Hamilton Thayer Huntington)도 있다.

로빈스 부부의 컬렉션을 기증받게 된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의 부관장인 린다 로스코 헤티겐 (Lynda Rosecoe Hartigan)은 “미국의 이야기를 뉴잉글랜드의 렌즈로 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부는 이미 70개 정도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했으며, 그 작품들 중 14개가 5월 18일부터 전시된다.

부부는 1955년, 실라가 라틴스쿨 졸업 후 화이트마운틴 호텔의 웨이트리스로 일할 당시 만나 1957년에 결혼했다. 샘은 투자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한때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던 실라는 결혼 후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다. 결혼 후 수도 없이 많은 주말을 화이트마운틴 부근의 경치를 감상하고, 또 근방의 갤러리들을 돌면서 보냈다.

컬렉션이 커지고 중요해지자,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작품을 대여하기도 했다. 총 40개 이상의 미술관 전시에 그들의 작품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멋진 여정이었다.” 실라는 미술관이 결국 컬렉션의 일부는 팔게 될 것을 아는 듯이 말했다. “이건 마치 정원에 있는 것과도 같다: 정원에서 꽃의 향기를 맡고서 그곳을 떠나도 여전히 그 향기는 마음속에 머문다.”

sun@bostonkorea.com



샘과 실라가 기부한 그림을 레지스트라 아담 브룩스가 들고있다.

1달러 지폐의 원작, 보스톤으로 돌아오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조지 워싱턴과 마사 워싱턴의 초상화가 보스톤으로 돌아왔다. 미완성인 이 작품은 1달러 지폐에 인쇄된 조지 워싱턴 얼굴의 원작으로 유명하다. 지난 3년간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내셔널 초상화 갤러리 (Smithsonian Institution's 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전시되었다가 다시 보스톤 미술관의 미국관 (Americas Wing)에 자리를 잡았다.

1796년, 조지 워싱턴이 공직에서 은퇴하기 직전에 그려지기 시작하

여 완성되지 않은 채로 화가의 집에 보관되었고, 화가의 임종 후인 1828년, 상속인에 의해 보스톤 아테네움 (Boston Athenaeum)에 팔려졌다.

화가인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길버트 스튜어트 (Gilbert Stuart)는 미국 첫 6명의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당대 유명한 초상화가로, 미완성으로 남긴 이 작품을 모델로 총 130개의 조지 워싱턴 초상화를 그렸으며 각각 100불에 팔았다고 한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만, 다이어트,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 ④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⑤ 소화장애, 변비, 대장성 대장염 등
- ⑥ 골관절염, 관절염, 만성 근육통
- ⑦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만성 불안
- ⑧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 ⑨ 기타 서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다양한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척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턴 아파트에서 살려면 얼마나 벌어야 할까?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는 평균 \$2,821
 렌트비를 위한 필요 연봉은 12만 달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개인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애셋(smartasset.com)에서 미국 내 대도시에서 평균적인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중에는 보스턴도 포함되어 있다.

보스턴에서 2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월평균 렌트비는 2,821달러다. 스마트애셋에 따르면 이 정도의 렌트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20,900달러는 되어야 한다.

12만 달러 가량의 연봉을 반드시 혼자 벌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족 구성원의 합산 수입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룸메이트들과의 소득 합계가 12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봉 12만 달러는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1년에 35,000달러 이하를 벌고 있다.

스마트애셋은 아파트 렌트비를 지불하기 위한 필요 연봉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수입 대비 렌트비의 비중을

28%로 산정했다.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부에서는 수입의 30%를 아파트 렌트비로 내는 것을 적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과다 지출로 규정한다.

아파트 렌트비 지출을 위해 필요한 소득 순위에서 보스턴은 미국 내 4위를 기록했다. 보스턴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이 요구되는 도시들로는 샌프

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이 있다.

스마트애셋은 보스턴 지역의 렌트비와 수입에 대해 “로열을 예로 들자면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가량 떨어져 있지만 1년에 59,143달러만 벌면 아파트를 렌트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스턴에 인접한 캠브리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렌트비가 더 비싸다.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캠브리지의 아파트 렌트 가격은 보스턴보다 7.4%가 더 높다”며 반드시 보스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jsi@bostonkorea.com



스마트애셋에서 미국 내 대도시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연봉 수준을 조사해 발표했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티켓 발부 증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티켓을 부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법안은 매사추세츠주에서 6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6,131개의 티켓이 운전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운전자에게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의 1,15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4월에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 18,000여 개의 티켓이 발부되었다. 티켓을 받은 운전자 중 56%가 남성이었으며, 전체 티켓의 75%가 40세 이하의 운전자에게 발부되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벌금 티켓을 가장 많이 받은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주로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많이 적발되었다.

jsi@bostonkorea.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주택, 렌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외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삼켜서 비만 치료하는 알약 풍선

웰슬리 바이오업체 엘루리온의 엘립스, 유럽에서는 이미 시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삼키기만 하면 위속으로 들어가 풍선처럼 커져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인근 웰슬리에 본사를 둔 바이오 업체 엘루리온은 위밴드 수술도 필요없이 복용 후 마치 마술처럼 비만을 치료하는 풍선을 개발했다. 이 풍선은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를 마취시키고 의사가 이를 구강을 통해 집어 넣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술은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며 감염의 위험도 도사렸다. 또 위 밴드 수술의 경우 몸에 수술칼을 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엘루리온이 개발한 엘립스(Ellipse)는 한번 삼키기만 하면 되므로 아주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다. 이 작은 알약은 이미 유럽에서는 시판되어 판매되고 있다. 유럽은 의료장치에 대한 허가 절차가 미국보다 비교적 쉽다. 엘루리온은 현재 FDA 허가 신청을 진행중이며 내년 임상실험을 통해 사용승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알약은 복용 후 약 15분 후 제대로 커지며 위속에서 약 4개월 머물게 된다. 이 기간동안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상당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풍선은 바람이 빠지게 되고 배설을 통해 몸밖으로 빠져나온다.

웬타누 고어와 새뮤얼 레비는 하버드 의대에 재학중인 7년 전 좀 더 나은 위장용 풍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유럽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를 보면 비만 환자들은 4개월간 평균적으로 초과 체중의 37%를 감량했으며 허리 둘레는 8cm 줄었다. 인체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엘립스가 시판되는 경우 수술과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비만을 줄일 수 있어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엘루리온은 최근 보스턴 벤처캐피털 회사인 로물러스로부터 6백만불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1천7백만불의 투자를 유치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운전자들 미국내에서 5번째로 난폭

가장 난폭한 운전자들은 뉴욕,
가장 싫은 운전 행위는 운전하면서 문자하는 사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운전자들은 미국내 운전자들 중에 5번째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관련 회사인 익스페디아가 실시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도로에서 가장 난폭한 운전자들이며, LA, 시카고, 워싱턴 DC 등의 운전자들이 가장 무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운전자들은 1천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1% 운전자들이 난폭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보스턴 뒤를 이어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휴스턴 등의 운전자들이 나쁜 운전자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마켓리서치 회사인 GfK가 메모리얼데이, 그리고 여름 휴가철 여행을 앞두고 실시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과 더불어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도 함께 조사했다.

가장 운전자들을 화나게 하는 운전행위는 운전중에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바짝 뒤에 따라붙는 테일게이팅이었다. 또한 세번째로 화나게 하는 운전은 막판 끼어들기였다. 그외 선을 벗



어나 운전하는 행위, 과속운전, 저속운전, 왔다갔다하는 운전, 뺑뺑거리는 운전 등이 싫어하는 운전이었다.

80% 운전자들이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는 차를 목격한 적이 있으며 77%의 응답자들이 위험한 과속을 본적이 있다고 밝혔다. 운전중만 짓을 하는 운전자를 봤거나, 세차기를 당했거나 테일게이팅을 당한 운전자도 많았다.

운전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운데 손가락의 욕을 받은 적 있으며 적대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겪은 경험이었다. 약 20%의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에 의해 육체적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 운전자의 45%는 동료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13%의 운전자들은 자전거와 도로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실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 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 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트럼프 "김정은 만날 용의 있다"

"월가 규제 '도드 프랭크 법안' 철폐"

(로이터=뉴스1) 국종환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실히 된 도널드 트럼프가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 국제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핵 개발 중단을 위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월가 규제법인 도드 프랭크 법안을 대부분 폐지하고 지난해 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재협상할 뜻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트럼프가 뉴욕 트럼프타워 사무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북핵 해결 위해 김정은과 만나 대화할 용의있다"

"나는 (평양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그(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그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정은 대화와) 동시에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중국)은 미국에서 수십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수십억달러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국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중국은 그 문제(북핵 문제)를 한번의 만남 또는 한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

◇ "월가 규제 '도드 프랭크 법안' 철폐"

트럼프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2주 내로 세부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월가 규제에 미국 금융권이 위축된 것을 지적하며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도드 프랭크 법안의 대부분을 없앨 것임을 밝혔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으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다른 대형 은행들과 비교하면 대형 은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독일이나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보라.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타워의) 아래층에도 세계 최대 은행이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대형 은행들을 키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중국이나 독일 그 밖의 다른 대형 은행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약 2주

안에 정책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것은 도드 프랭크 법안과 관련된 것이다. 도드 프랭크 법의 대부분은 매우 좋지 않다고 본다. 법의 대부분은 규제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쥐어 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은행이 직업을 창출하려는 사람들, 즉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그렇다고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는가. 아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 아래에서도 여전히 부실대출은 존재한다. 잘 살펴봐라"

"그래서 나는 이와 관련해 경제 정책을 밝히고자 한다. 내 입장은 이렇다. 도드 프랭크 법안의 일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드 프랭크 법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jhkuk@news1.kr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이후 포즈를 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부시측 "트럼프-김정은 만남 '北 핵 보유 인정' 나쁜 생각"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계획이 "매우 안좋은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린 부소장은 18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컬럼을 통해 "이건 모스크바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여는 것과도 다른 문제"라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린은 컬럼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더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상 간의 회담은 '나쁜 아이디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과의 만남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그린의 설

명이다.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확신을 저버리고 북한 주민들 역시 희망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같은 핵보유국으로서만 미국과 무기통제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지위를 인정하고 제재를 끝내는 한편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고 북한의 인권학대 행위 비난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협정을 통해 이런 조항들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김정은)와 이야기할 것이다. 그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lchung@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8.5 mile / Lexington 10 mile / Newton 20 mile
E-mail: sunautobody@yahoo.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구리 3개월래 최저...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달러강세

(런던 로이터=뉴스1) 온다에 기자 = 국제 구리 가격이 18일 3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4거래일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탓에 다른 산업금속들도 구리를 따라 대부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는 0.9% 떨어진 톤당 4612.5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직전에 정규장이 종료됐다. 장중 한때 4563.50달러를 나타내 지난 2월 1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올해 금리가 2~3번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통화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는 3주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중국국제은행의 사오 푸 원자재 전략장은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비금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위협회피 성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푸 팀장은 구리가 지난 1월만큼 하락폭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구리는 6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4318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칠레 안토파가스타 구리 광산 회장의 발언도 가격을 끌어내린 한 요인이었다. 장 폴 록시치 회장은 "1~2년 안에 구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의 지난달 주택가격이 2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해 금속가격을 지지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택 부문은 구리 수요가 많은 산업군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뿐만 아니라 냉

장고 등 가전제품에도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의 제임스 글렌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경기를 부양하기로 결심한 듯하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당국은 1072억위안(약 19조3646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알루미늄이 0.4% 올라 1551달러를 나타내며 구리 외 비금속 중 유일하게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니켈은 1.9% 내려 톤당 8635달러를 기록했다. 납은 LME에서 재고가 4800톤 증가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자 1.1% 하락해 1702.50달러를 나타냈다. 아연은 0.8% 하락해 톤당 1888달러로 장을 마쳤다. 주석은 1.1% 내린 1만677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hahaha8288@news1.kr



런던금속거래소(LME) 객장에서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아마존 설립자 겸최고경영자(CEO)이자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베조스, '아마존 저격' 트럼프 발언 "적절치 못해"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아마존 설립자 겸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가 18일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베조스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에서 마련한 질의응답 형식의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베조스는 앞서 아마존이 세금 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아마존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베조스와 아마존을 저격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조스가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WP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워싱턴 정가가 아마존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WP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WP가 트럼프의 대통령자질 검증에 위해 기자들을 대거 투입,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베조스는 "우린 우리가 선출한 관료에 대해, 특히 그것이 지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라면 더욱 세밀히 알아보고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는게 더 충격적이고 불안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건 워싱턴포스트의 오랜 전통이고 앞으로도 (방침을) 바꿀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lch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과병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Café Business Consulting

Café Coffee Shop Yogurt Shop

Opening Turnkey base
Business Consulting
Free Estimate

장소선택, 상권분석
종업원 채용, 바리스타 교육
은행융자 및 장비리스 상담



June Special Sale Event



Espresso machine
Grinder
Real fruits mix



문의: MAXSON DEVELOPMENT LLC.
Mr. Paul Son: bkcson@gmail.com | **781.704.4825**
300 Newburyport Turnpike Rowley, MA 01969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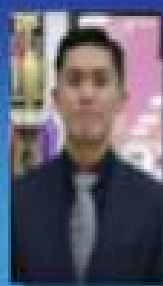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호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위기의 여, 비박 반란...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 최근까지 국회 국정통제권 강화 우려 반대...정 의장 상정에 비박·탈당파 가세
여소야대 상황서 언제든 청문회 개최 가능...새누리 부담 커져
새누리 "20대 국회 반드시 재검토 할 것"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 연중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국정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에선 야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당초 이 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가능

해지면서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되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며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않고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원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시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내 이병석, 정병국, 이종훈 의원 등 비박계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조해진, 안상수 무소속 의원들이 정 의장에게 동조하면서 결국 원안이 본회

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 수정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라고 해서 다 반대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통과돼서 참 씁쓸

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왜 상정했는지 국회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

이 있다"며 "시시때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현안에 대해 정쟁만 일삼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관행을 무시한 국회의장의 독단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 사과와 함께 의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법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jm@news1.kr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ng Joo (우 조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20 - MAY 26,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Corn Dogs - Korean Style.

Aren't you excited to make your own corn dogs, a kid world favorite? Try it now!

H마트와 함께하는 맛있는 가족 간식 만들기! 하나씩 쓱쓱 집어먹는 미니 핫도그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FRI/SAT/SUN ONLY 20/21/22 ONLY Ataulfo Mango 아툴포 망고 박스 \$10.99 box	Nagaimo 일본 마 \$3.9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16oz. \$0.99	Ginger 생강 \$0.99 lb.
Gobo 우엉 \$1.99 lb.	USDA ORGANIC Organic Banana 유기농 바나나 \$0.49 lb.	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79 lb.	Louts Roots 연근 \$1.99 lb.	Banana 바나나 \$0.2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	FRESH Bone-in Beef Hindshank Chunk 뼈있는 아롱사태 \$4.99 lb.
Hand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수제 돼지 생목살 \$4.99 lb.	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8.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 lb.	Marinated Chicken Tenderloin 양념 치킨 안심 \$3.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I/SAT/SUN ONLY 20/21/22 ONLY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5-7's \$18.99 lb.	LIVE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9.99 lb.
FRI/SAT/SUN ONLY 20/21/22 ONLY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단꽃게 1 lb./2L - pkg. 2\$5.99 pkg./for	TONGTONGBAY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80-100's/2 lbs. - box \$4.99 FROZEN
Half-shelled Mussels 반개 혼합 2 lbs./pkg. \$7.99 FROZEN	TONGTONGBAY Mackerel Pike 통통배 The 맛있는 꽁치 11oz./pkg. \$2.99 FROZEN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Smart Card Only	ASIAN BEST Jasmine Rice 아시안 베스트 자스민 쌀 25 lbs. \$17.99 Smart Card Only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14.1oz. \$4.99 Smart Card Only	DONGSUH Maxim Coffee Mix 동서 맥신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Mild - 100ct/box \$12.99 Smart Card Only

RICE AT THE BEST PRICE!

IT'S THE KYONG GI RICE EVENT
경기미 고객 사은 대잔치
 용량은 20% 올리고, 가격은 그대로! 이벤트 기간동안 경기미 18파운드 백을 15파운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해오름 상상 깨맛살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3.99 2.2 lbs.	정정원 순장 100% 현미 대양조 절고주장 CHUNGJUNGONE 100% Brown Rice Red Pepper Paste \$12.99 6.6 lbs.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BRAGG Organic Apple Cider Vinegar 브래거 유기농 사과 식초 32fl.oz. \$5.49 USDA ORGANIC
PENGUIN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펭귄 공치 통조림 14.11oz. \$1.99	GOMPYO Wheat Flour 곰표 중력 다목적용 밀가루 5.5 lbs. \$3.99	HAIOREUM Korean Style Premium Fresh Cold Noodle 해오름 팽양 물/녹차/참 양면 Arrowroot/Pyeongyang/Mul/1.23-2.2 lbs. \$3.99	시라키쿠 교자 SHIRAKIKU Gyoza All Varieties/21oz. \$4.99
MOCHI MOCHI Ice Cream 모찌모찌 아이스크림 All Varieties - 2fl.oz. x 6ea./pkg. \$3.99	GLICO Pocky Biscuit Sticks Chocolate/Strawberry/Cookies and Cream - 4.19 - 4.47oz. \$3.99 글리코 포키	키친아트 고급 수저세트 KITCHEN ART Premium Spoon & Chopsticks Set \$19.99 5pairs/set \$13.99	코맥스 웰빙 2단 도식락 세트 KOMAX Lunch Box Set Wine/Black - set \$18.99 \$10.99
		칼피크 드링크 CALPICO Drink All Flavors/1.5L \$3.99	BACCHUS Glass Jar 바커스 유리 과일주병 \$13.99 10L/ea. \$9.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 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5·18은 폭동' 주장 지만원, 법원서 광주시민과 몸싸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했던 지만원 씨(75)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왔다가 항의하는 광주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지씨가 법정을 나서자 광주시민 등 30여명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지만원을 잡아라"고 말하며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시민 등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바로 앞에 드러누운

방청객도 있었다.

지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16일에 열린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등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5·18에 대해 북한특수군 600명이 계엄군, 북한 고위 권력층 400여명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5·18기념재단 등은 광주항쟁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었던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5·18 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거짓 사실을 만들어 퍼뜨렸다"며 지난 3월 출판물 발행·배포·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지만원 씨

'임을...' 제창 불가...야 "해임결의안", 여 "동참안해"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야권이 국가보훈처의 '임을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불가 방침(제창 아닌 합창 방침 고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결의안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포문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정에 대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3당이 공동발의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보훈처가 국론분열 우려가 있어서 제창을 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합창을 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도록 한다는 현행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의 합의를 찢어버리는 결과로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훈처는 재고해야 한다"며 "제창이 가능해진다면 '국론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당에 먼저 통보한 청와대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아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보훈처의 결정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박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만나서 합의한 것인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는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야3당은 공동으로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에는 동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은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 발표 직후엔 정부의 방침을 두둔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김용태 혁신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상견례 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첫 상견례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 다시 한 번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총리에도 전화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상견례 전에는 "(제창이 허용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불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었다.

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혁신위 및 비대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보훈처는 앞서 이날 오전 5·18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공연을 포함하되, 제창이 아닌 공연단 이 '합창'하는 것으로 결정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krusty@news1.k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광주 반발 확산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하자 광주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정부주관 공식기념식 불참을 선언했고, 5월 단체는 기념식에서 침묵시위를 예고했다.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차분하고 정중하게 엄수돼야 한다"며 "유가족들과 5월 3단체는 기념식에 참석해 침묵시위를 하며 보훈처에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고 했다.

5·18 행사위원회와 5월 3단체인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은 기자회견 직전 광주 동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의를 갖고 '임을 위한...'이 제창되지 못하고 합창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정부 주관 제36주년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구선 5·18 행사위원장은 "만일 올해도 기념식이 반쪽행사로 열린다면 5·18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불참 결정 역시 존중한다"며 "반쪽 행사가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공동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보훈처의 '임을 위한 ~' 결정에 반발,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조영표 광주시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주시의원 21명 전원이 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 참석 대신 5·18민주묘지 민주문 앞에서 5·18을 과행으로 몰고 간 박근혜 정부와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불허된 것에 대해 광주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국론분열'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한 것은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을 위한 ~ 제창 불허는) 14·13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이 노래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36주년 5·18 기념식 참석자와 광주시민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만의 노래가 아니라 민주·인권·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역사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보훈처를 통해 기념곡 지정뿐만 아니라 제창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광주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작은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시당은 성명을 통해 "합창 방식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국민적 합의로 개최되고 있는 5·18 기념식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2016년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식 식순에 포함해 기념공연으로 합창하는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alchi@news1.kr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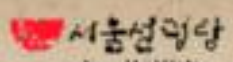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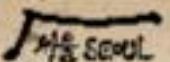


더 맛있는 서울설렁탕의 비밀,
특별, 오랜, 숙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com



서울 or Seoul in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3.8888
SeoulFoodBoston.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당신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진로 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희가 그 길의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넘기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강한 정신력과 높은 이상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미육군에서는 그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공을 위한 길의 첫 걸음을 미육군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강한 미육군으로 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ARMY의 미육군 신병모집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거나 goarmy.com의 "FOR PARENTS"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WESTWOOD ARMY CAREER CENTER

372 Washington Street, Westwood, MA
SGT Casey McNally Tel. (781) 251-0122
www.facebook.com/sgt.mcnelly



영혼없이 '관계 회복' 외치는 친박-비박...화합 가능할까?

사실상 심리적 분당상태 속 20일 중진연석회의 추진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친박(親朴근혜)과 비박계(非朴근혜)가 등을 돌리고 격렬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19일 당내에서 화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영혼없는 리액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20일 회동해 당 내홍을 매듭지를 해결책을 고민할 계획이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회의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 한 의원도 "그래도 당은 깨져서는 안된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 속 두 계파의 정서적 대결은 임계치에 육박해 있다.

친박계는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를 언급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가라'며 비박계를 향해 탈당을 종용한 상태다.

비박계에서는 친박을 향해 "그런 오만함이 혁신 대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비박계 한 의원은 친박계의 탈당 언급에 대해 "그것이 배신의 정치"라며 "해당적 발언이다"고 반유했다. 친박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전 위기와 달리 이번 계파 갈등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과거 새누리당은 위기를 맞으면 계파와 관계없이 절박함을 갖고 움직였다"며 "지금은 서로 자기 이익을 앞세워 갈등하고 있어 화합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을 오래 하

면서 절박함이 줄어든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정서에서 진행되는 20일 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song65@news1.kr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열린 전국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되고 있다

여 비대위 무산에도 '보이지 않는 손' 작동"...비박'부글부글'

원내지도부 구성에 이어 상임전국위·전국위 무산 '보이지 않는 손'

비박 "친박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친박 "보이지 않는 손은 없어" 반박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가 친박(親朴근혜)계의 조직적 보이콧으로 무산된 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주장이 18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원내지도부 구성 직후 친박계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무산 사태에도 작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 지향했던 목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은 비대위와 혁신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당이 친박계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친박계가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일 원내지도부가 친박계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물밑 지원 속에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가소롭다"고 일축하면서 자신은 계파 논리를 초월한 정당 재창조를 위해 "마누라 빼고 다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에서 비박(非朴근혜)계 인사들을 전면배치했다.

이에 반발한 친박계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의미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동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정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뜻에 거슬리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배신감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무산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확실한 건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원리가 총선 참패에 이은 난과 직전의 새누리당을 쇄신하고 환골탈태 하고자 하는 지향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혁신위원장에게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전날(17일) 전국위 무산 직후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일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한 안상수 무소속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은 다 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람들이 자주 조정을 하니까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친박 일부 중에 좀 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전날 벌어진 사태에 배후조정을 암시했다.

비박(非朴근혜)계 한 의원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어제 그 조폭같은 엄청난 행동을 상임전국위원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무슨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비박계 3선의원 8명도 정 원내대표에게 긴급 당선자 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정 원내대표가 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무산됐는지, 무산되는 데 문제가 생겼고, 발단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은 실체도 없을 뿐더러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장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친박계의 조직적 보이콧과 관련, "그렇게 결의한 적이 없다"며 "지금 당내 많은 분들이 혁신위원장이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불참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이해훈 당선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인도 않고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ykimf@news1.kr

'갈 때까지 가 보자'는 새누리...분당 위기론

친박대 비박, 깊은 앙금 재확인...

지도부 공백, 중진 부재 속 갈등 확산일로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새누리당내 친박(親朴근혜)과 비박(非親朴)의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18일 당안팎에서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17일) 당 쇄신을 위해 단행된 비상대책위원 인선과 혁신위원장 추인을 위해 개최기로 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보여서는 안될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공당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는데도 하루가 지난 18일 새누리당은 여전히 '니탓 내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문제는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이참에 분당해 아예 갈라서자는 상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친박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는 판단에 비박계에선 '양아치 정당' '탈당 검토'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비박계 김성태 의원은 이날 "분당을 염려할 정도로 상황이 위중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친박계에서는 '차라리 잘됐다'고 반응하며 강경대응했다. 김태흠 의원은 "절이 싫으면 스님이 나가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연대' 등의 탈당 러시가 아니라 야당 분당 사태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야당의 분열만 바라봤는데 이합집산이란 단어의 당사자가 될 상황"이라며 "친박연대는 각자도생해서 돌아오자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갈라서자고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는 보

장됐다는 생각에 전체 당의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는 데는 당 지도부의 공백사태가 원인으로 주목된다.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중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20대 총선에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의 출현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3의 정치세력화 움직임도 새누리당 분당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전남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는 백적간두 위기에 서있다. 이럴 때 편가르고 정치공학적으로 자기가 더 무엇을 얻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당 일각에선 대선을 1년6개월 앞둔 가운데 분당이란 파국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비박계 한 의원은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어왔다"며 분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친박이고 비박이고 용기가 없어서 분당까지 끌고가는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song65@news1.kr



지난 17일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lexington.com
www.icondental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용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파 화장실 내 위치)

탈라, 교란지 쥬,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루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컬로언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지,
피로방, 탄력, 밝
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활력을 주는 효자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 50% 할인
간편하게 구매 가능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한강 '채식주의자' 1분에 10권씩 팔려...출판사 10만부 긴급 추가 인쇄

총 인쇄부수 20만부 넘어설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창비) 판매가 폭발적이다. 일부 서점에서는 책이 없어서 못파는 지경이 되어 출판사 창비는 17일 10만부의 추가인쇄를 긴급히 발주했다. 하지만 계속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며칠 사이에 총 20만부가 인쇄될 것으로 창비는 내다봤다.

교보문고는 1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채식주의자는 2473권, 이를 포함한 한강의 도서 전체는 3164권 팔렸다고 밝혔다. 17일은 채식주의자가 6175권, 한강도서 전체는 7316권 팔렸다. 수상 전인 16일에 채식주의자가 189권, 한강

도서 전체가 282권 팔린 데 비하면 수십배의 폭증이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는 수상소식이 알려진 5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누적판매량이 종이책 1만3840권, 전자책 554권이다. 수상소식이 알려진 17일 하루 판매량은 종이책으로 1만 239권, 전자책은 382권이다. 이는 전날인 16일 판매량 182권 대비 약 58배 증가한 수치로 1분당 약 9.8권씩 팔린 셈이다.

대략 전날 오전부터 18일 정오까지 교보가 9200권, 예스24가 1만 4000권, 인터파크도서가 9500권, 알라딘이 8100권을 팔아 이 네 곳 서점의 '채식

주의자' 판매량은 4만권을 넘어섰다.

창비의 염종선 이사는 "'채식주의자'는 우리가 가진 재고도 동이 났다"면서 "어제 10만부 추가 인쇄에 들어갔지만 18일도 서점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와 총 인쇄부수는 20만부 이상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의 인기로 한강의 최근작이자 역작인 '소년이 온다'(창비)의 판매량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예스24에서 전일 대비해 판매량이 22배 늘었다.

예스24 종합순위에서 '채식주의자'는 1위, '소년이 온다'는 15위를 기록중이다. 교보문고 인터넷베스트 순위에서는 '채식주의자' 1위, '소년이 온다'는 무려 전날대비 81계단 상승한 11위

를 기록중이다.

창비는 '소년이 온다'도 5만부 추가 제작에 돌입했다. '소년이 온다'는 현재까지 총 6만부 팔려 이 역시 며칠 사

이로 총 판매량이 10만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ungaungae@news1.kr



소설가 한강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가 세계 3대 문학상에 꼽히는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올해 수상작에 선정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수상작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의 출간작들이 진열돼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강남역 문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강남 문지마 살인' 30대 남 구속..."범죄 중대"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3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23·여)의 왼쪽 흉부 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날 오전 10

시쯤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히며 시인했지만,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병력 등이 확인됐다. 다만 김씨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약 1시간30분간 심리면담을 실시한 끝에 김씨의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된 것이 범행의 동기로 보인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hm3346@news1.kr

'강남 문지마 살인' 추모제에 '일베 화환' 등장 눈살

추모제 끝난 강남역 인근서 발견...참가자가 근조화환 리본 잘라내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애도하는 추모제 현장 인근에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근조화환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화환은 19일 추모제가 끝난 뒤 오후 10시쯤 강남역 10번출구 인근에서 발견됐다. 화환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노무현 외 일동", "남자라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을 잊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를 보고 분노한 시민 일부는 "정신이 나간 것 같

다"고 말하며 문구 위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이후 화환이 발견된 지 10여분 뒤 한 여성이 문구가 적힌 리본을 잘라냈다.

'일베 화환'이 등장한 데 대해 이날 추모제를 제안한 양지원씨(31·여)는 "우리가 말하는 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이런 식으로 천안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론을 몰아가고 남성들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행동 같다"고 비판했다.

hm3346@news1.kr

"단물 빼먹고 버린다"...연봉 9배 中 반도체업체의 위험한 유혹

중국업체 파격제안에 이직한뒤 몇년만에 토사구팽 사례 다수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건에 묶여 구직 힘들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연봉의 최대 9배까지 준다는 중국 반도체업체의 '러브콜'을 조심하라는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파격적인 이직 제안에 선뜻 응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S급인재의 경우 1년치 연봉의 최대 9배까지 준다는 소식에 업계가 술렁였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3~4년 전 중국 반도체업체로 이직했던 '1세대' 가운데 재계약에 실패해 기술만 뺀채 3년 만에 일자리를 잃은 인력들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혀 다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중국 기업에 다녔다는 '꼬리표'가 붙는 바람에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후문이다.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직원 연봉계약서에 2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등 반도체 업계는 기술유출 우려에 따른 이직제한이 센 편이다.

이때문에 활발했던 스카우트 열기도 한풀 꺾였다.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링크드인'을 통해 헤드헌터의 이직 제안을 받은 국내 반도체 연구인력들은 헤드헌터와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A 반도체 설계회사에 근무 중인 김모 부장(44)은 "최근에는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중국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로 반전됐다"며 "체류비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말에 솔깃하긴 했지만 높은

연봉을 주는 만큼 최대한 짧은기간 기술만 빼서 쓴 뒤 버린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인 한국인들보다는 대만이나 인도 등 외국인 직원들이 중국 회사로 많이 이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술을 사수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 기술의 '산증인'인 퇴직 임원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퇴직 고위임원을 위해 서울대학교 등 대학에 연구교수 자리를 만들어 예우하고 있다.

삼성 역시 과거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대만, 미국 등에서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해 반도체 산업을 일궈냈다. 이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인력유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를 3~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으로의 인력유출에 대비해 연봉인상이나 교육기회 제공 등 핵심인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인력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의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고 기업별 상황이 다르다보니 세부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eeit@news1.kr

Pre-Construction Pricing! ACT NOW!



BROOKFIELD VILLAGE



New Single Family Homes From \$400K's

www.pulte.com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a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at SouthField in Weymouth, MA!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all or visit for information!

877-772-6131



**Open Tues.-Sun. 9-5
Mon. by Appt.**

**An Exceptional Value
Right Now On New
Single Family Homes!**

Life Tested™ Features

- ✓ Six Spacious 2-4 Bedroom Homes
- ✓ Single Family and Town Home Designs
- ✓ Granite Kitchens
- ✓ Walk to Commuter Rail
- ✓ Master Suites
- ✓ Detailed Interior Trim
- ✓ Nine Foot 1st Floor Ceilings
- ✓ Low Maintenance Living
- ✓ Life Tested™ Designs

WOODSTONE CROSSING

**Why rent?... When You Can Own.
Woodstone Crossing**



Life Tested™ Features

- ✓ 7 Spacious Floor Plans
- ✓ Luxury 1-2 Bedroom Homes
- ✓ Granite Kitchens
- ✓ Low Monthly HOA Fees
- ✓ Master Suites
- ✓ Detailed Moldings/9' Ceilings
- ✓ Elevator Building
- ✓ Low Maintenance Living
- ✓ Walk to Commuter Rail
- ✓ Minutes from Boston
- ✓ Life Tested™ Designs

Sales Center Open • Tues - Sun 10am-5pm Mon By Appt.

**New Garden Style Condominiums!
Sales Center Now Open!
New Homes From \$300K's**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in Weymouth, MA at SouthField!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www.pulte.com

866-813-7267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ommunity Association fees required. Details available upon request. Offers and price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2016 Pulte Homes of America, LLC.





NEWSTAR BOSTON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Beds, 2Baths, 2,540sf.
좋은 학군, 많이 update된 집
넓은대지, New Master Suite
이현주 401-935-3397



\$664,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1,049,000
Acton, MA
4 Beds, 4 Baths, 3652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Gina Choi 978-866-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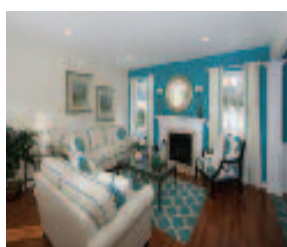
\$1,149,000
Lexington, MA
5Beds, 2 1/2 Baths, 2,907sf.
최고의 학군, 대중 교통
조용하고 편리한 환경
신보경 508-361-6064

Single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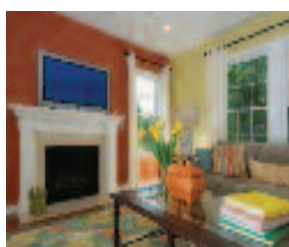
New Construction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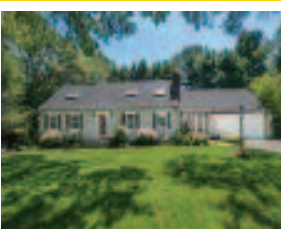
콘도/타운하우스/단독주택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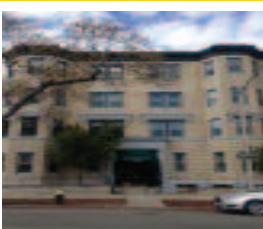
Single Family

Condominium

R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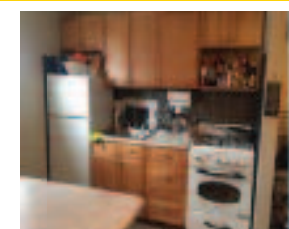
\$649,900
Andover, MA
Open House 5/22 1PM
4Beds, 2.5Baths, 2,377sf.
Janice Lee 978-806-6023



\$1,780/mo.
Boston (Allston), MA
1Beds, 1 bath, 650sf.
Updated Kitchen and Bath
Steven Son 617-290-0623



\$2,700/mo.
Boston (Back Bay), MA
1Beds, 1 Baths 709 sf.
트인구조, 높은 천장, 새 부엌
Jay Lee 781-654-5281



\$1,500/mo.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Boston, MA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mo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Condo Rental

\$1,600/mo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0년 이래 / 100만 명 이상의 고객 /
전국에 걸쳐 활동하며 / 100% 고객 중심 / 한국 및 중국 고객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teve Yoo
617-386-3451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Pick-up Cleaners Exclusive \$149,000 Waltham, MA 몰 안에 위치, 성업중 신규 또는 확장 모두 적격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 Cleaner Exclusive \$159,000 Inside I-95/128 Corridor 부자동네, 성업중인 비즈니스 부부 근무 NET \$100,000+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 Cleaner Exclusive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출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 Cleaner Exclusive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출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Restaurant Exclusive \$499,900 Brookline, MA Including Liquor Licence 5000 sf. 18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500,000 Harvard Square (Cambridge)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12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915,000 Providence, RI 브라운대학 근처 Including Liquor License 이현주 401-935-3397	Restaurant Exclusive \$309,000 All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Nail Salon Exclusive \$110,000 Cambridge, MA Porter Square 400sf.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프렌차이즈 한국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비즈니스 셋업 무료상담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Exclusive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현재 성업중 SJ Park 617-304-7001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95,000 Boston, MA 아주 볼만한 위치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09,000 Allston, MA High Traffic Main Road Steven Son 617-921-6979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s 성업중인 네일샵 리스팅 확보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크기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풋볼 선수 TOP5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풋볼 역사상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는 누구일까? 호기심이 가면서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스포팅뉴스(sportingnews.com)에서는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풋볼 선수 40명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는 반칙 플레이를 일삼는 선수도 있고,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이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도 있다.

다만 스포팅뉴스에서는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 아론 헤르난데즈나 오제이 심슨처럼 풋볼 선수로서의 생명이 다한 후에 팬들의 공분을 산 경우는 제외했다.

스포팅뉴스에서 선정한 가장 미움 받는 풋볼 선수 상위 5명을 살펴보자.

5. Tom Brady

브래디는 가장 미움 받는 선수 5위에 올라 있지만, 가장 사랑 받는 선수 리스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브래디는 수퍼볼 우승을 4번이나 차지한 수퍼스타지만 여러 논란이 항상 따라다닌다. 트릭 킬, 스파이게이트, 디플릿게이트 등의 논란은 브래디의 풋볼 경력에서 분명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보다 많은 승리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브래디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브래디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논란이 브래디를 따라 다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4. Greg Hardy

하디는 쉽게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다. 하디는 가장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5 시즌에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즌 내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고, 카우보이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할 때도 경기장에 지장을 주었다.

이번 오프시즌 동안 있었던 ESPN과의 인터뷰를 보면 하디는 전혀 뉘우친 기색이 없다. 하디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선수 생활을 마치기 전에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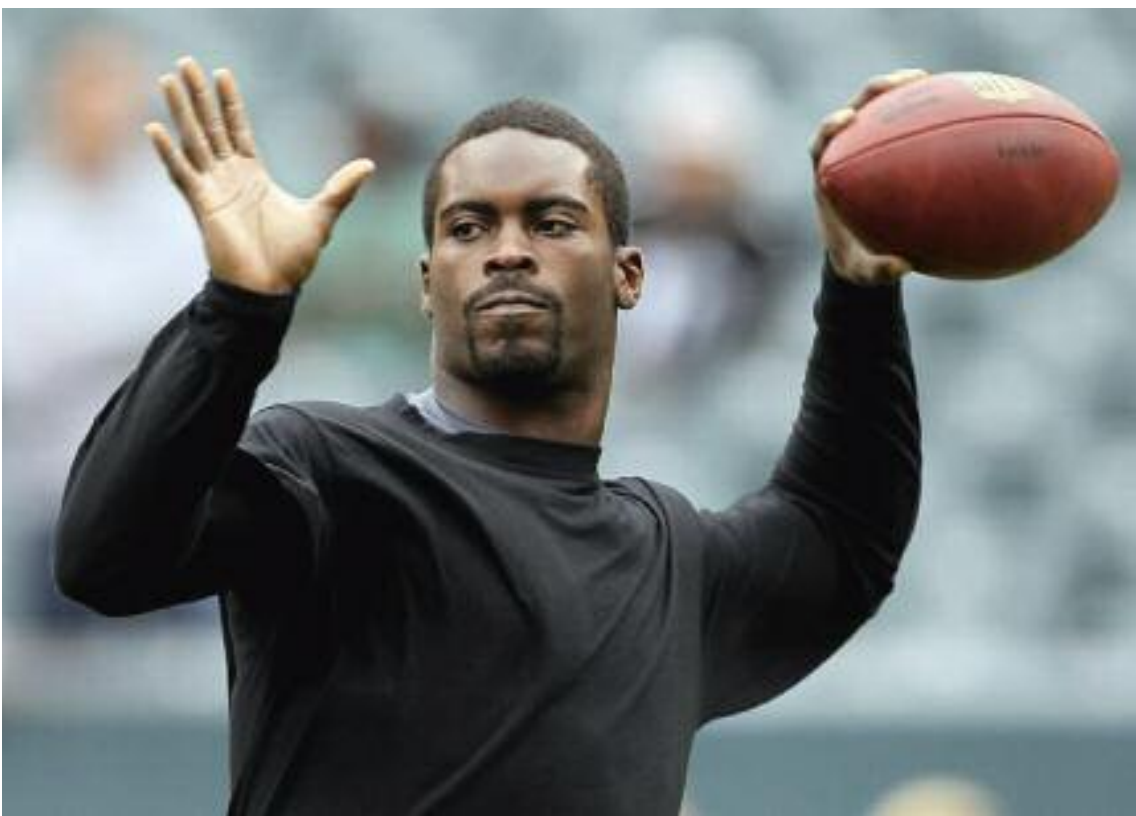
3. Ndamukong Suh

수는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그러나 더티 플레이어로서의 악명도 높다. 특히 수는 자신만의 더티 플레이를 일삼는다. 상대팀 선수의 머리를 걷어 차거나 다리를 밟고 지나가곤 한다.

이미 수는 수도 없이 벌금을 물었지만 더티 플레이를 그만둘 의사가 없어 보인다. 마이애미로 팀을 옮긴 이후에도 수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다.

2. Terrell Owens

오웬스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질을



축망 받던 쿼터백이었던 마이클 빅은 투견 혐의로 연방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

갖고 있는 리치버였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이기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 팀을 전전해야 했다.

오웬스는 15년의 프로 생활 동안 7팀을 거쳤다. 그리고 소속팀과 기분 좋게 끝을 맺은 적이 없다. 오웬스가 보여준 경기력과 기록은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올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1. Michael Vick

빅이 NFL에 데뷔할 때 풋볼계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렸다. 화려한 경기 덕분에 인기도 많았지만 한 순간에 가장 욕을 먹는 선수가 되었다. 빅은 투견 싸움에 연루되어 연방 감옥에 수감

되었다.

이후 빅은 이글스에 복귀해 어느 정도 이미지를 회복했다. 그러나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할 때 빅만큼 전국적으로 뜨겁게 미움을 받은 풋볼 선수는 없다.

jsi@bostonkorea.com

강정호, 강속구 받아쳐 시즌 5호 홈런...김현수·박병호 침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킹캉'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즌 5호 홈런을 터트렸다. 기대를 모았던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맞대결에선 누구도 웃지 못했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의 방망이는 2경기 연속 침묵했고,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휴식을 취했다.

강정호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0-3으로 뒤지던 9회말 솔로포를 때려냈다.

지난 16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4호 홈런을 기록한 뒤 사흘 만에 왼쪽 답장을 넘겼다.

강정호는 이날 상대 선발 홀리오 테헤란의 구위에 눌러앉은 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내지 못했다.

1회말 2사 2루에서 6구째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자의 범타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강정호는 4회말 1사에서 3루 땅볼, 7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중견수 플라이로 돌아섰다.

그러나 강정호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

다. 상대 마무리 아로디스 비스카이노를 상대로 추격의 솔로포를 때려냈다.

강정호는 비스카이노의 96마일(154km)짜리 높은 직구를 받아쳐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아치를 그렸다. 상대 투수들에 막혀 답답했던 홈팬들에게 강정호의 한방은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됐다.

강정호는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 시즌 타율이 0.281이 됐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이날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애틀랜타는 3회 프레디 프리먼의 중전 적시타와 함께 6회 타일러 플라워스가 달아나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이날 패배로 피츠버그는 21승18패가 됐고, 최하위 애틀랜타는 10승(29패)째를 뒤늦게 수확했다. 애틀랜타 선발 테헤란은 7⅓이닝 5피안타 무실점 역투로 시즌 첫 승(4패)을 거뒀다.

모처럼 선발 기회를 잡은 김현수는 안타 없이 1볼넷 1득점에 그쳤다.

김현수는 이날 볼티모어 캠프 야드에서 열린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9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 1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최근 선발 출전한 2경기에서 모두 무안타로 침묵했다. 교체 출전했던 18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내야수 강정호가 시즌 5호포를 뽑아냈다

시애틀전까지 포함하면 3경기 연속 무안타다. 김현수의 타율은 0.393에서 0.379로 하락했다.

김현수는 2-0으로 앞서던 2회말 2사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났고, 3-2로 근소하게 앞서던 5회말에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다. 김현수는 상대 투수의 폭투 때 홈을 파고 들어 득점에 성공했다. 김현수의 득점으로 볼티모어는 4-2로 점수차를 벌렸다

김현수는 6회말 3번째 타석에서 놀란 레이놀즈와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한편 볼티모어는 시애틀을 5-2로 제압했다. 2연패를 끊어낸 볼티모어는 24승14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질주했다. 시애틀은 22승17패(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가 됐다.

alexai@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 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www.pospay24.com



<고객 절약 사례>

본촌: 30% 절약
매지골: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전해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도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남성 코 성형 대세” ... 직선으로 떨어지는 ‘조각같은 코’ 인기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스타동안피부과성형외과' ... 성형 전 코 성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담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취업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화장, 성형, 패션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움프뷰티, 움프패션 등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형외과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성형수술이 최근에는 남성들에게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남자들의 경우 성형에 대한 거부감을 보통 갖고 있지만 실제로 성형을 원하는 부위를 물어보면 보통 코를 꼽는다. 실제로 남성의 성형수술 부위 중에는 코성형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의 경우 큰 코, 혹은 심하게 휘어진 코, 심술이 강해보이는 매부리코, 화살코 등 교정이 목적인 성형수술을 행하지만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낮은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남자 연예인들의 코를 보면 직선으로 떨어지는 듯 조각 같은 코가 인기가 있다.

남자코는 여자코와 다르게 선호하는 모양이 다르고 길이 코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의 술기와 함께 디자인적인 부분도 고

려하여야 한다.

남자의 코 성형이 여자의 코성형과 다른 차이를 두자면 남자는 콧대성형을 여자는 코끝 성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남성의 코 성형은 여성과 달라 : 남자의 코는 미간부터 코의 끝 부분까지 곧은 직선 라인의 코모양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콧대를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탁하게 중심을 잡는 경우가 많다.

스타동안피부과성형외과의 최호철 원장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코가 큰 편이고 휘어짐 증상이 있거나 콧볼 면적이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과는 다른 차원을 적용하여 코 성형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철 원장은 또 "남성 코성형의 성공은 코성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남녀 코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콧대와 코끝에 사용되는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동안피부과성형외과와 제휴한 휴람네트워크의 김수남 팀장은 "

요즘은 미용을 위해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성형을 하는 남성분들의 문의가 점점 늘고있다"며 "코 성형 또는 다른 부위의 성형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남성분들은 한국방문시 전문의와 미리 상담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스타동안피부과성형외과'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미인의 기본 조건은 '잡티 없는' 피부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피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기 쉽다. 여름철엔 많은 양의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잡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미와 주근깨는 피부와 건강에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요즘과 같은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는 깨끗하고 어려보이는 피부들을 원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자 병원에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방법은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여 치료를 미루고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빠르고 흥

이 남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기미와 주근깨와 같은 잡티를 치료할 수 있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사용되는 레이저와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꼭 피부를 잘 알고 치료 경험 많은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 후 시술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미와 주근깨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예방법도 중요하다.

◀ 자외선 차단하기 :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을 막론하고 외출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아이템이다. 자외선을 제대로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한 단계 늦출 수 있을 것. 여름철에는 수

분 함량이 높은 자외선 차단제로 뜨거운 태양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지키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

◀ 애프터 홈 케어 : 외출 후 온종일 피부에 쌓인 피지와 각종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 주자. 세안 후 토너를 화장솜에 넉넉히 묻혀 피부 결을 따라 닦아주면, 잔여 노폐물이 제거된다. 또한 기미, 주근깨 등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함유한 세럼을 발라 멜라닌 색소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어 칙칙한 눈가를 환하게 가꿔줄 아이크림을 얇게 펴 발라주면 화이트닝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애틋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애틋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병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대학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류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예수제일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화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화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775
켄싱턴성장교회	617-770-2877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창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가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매일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송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초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
------------	-------------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프레스, 헬퍼, 딜리버리 하
실 분 구합니다. (남녀노소)
T. 617-840-1833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N[매 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N[구 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m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tch18@gmail.com

보스톤 **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인천상륙작전' 7월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정재, 이범수, 리암 니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2016년 기대작 '인천상륙작전'이 올 여름 관객들을 찾아온다.

17일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오는 7월 개봉한다. '인천상륙작전'은 5000:1의 성공 확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상륙작전 속 군번도 계급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 전쟁 최대 병력인 7만5000명의 연합군과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 역사적인 전투로 기록돼 있다. 영화는 1950년 9월15일 오직 하루만 가능했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첩보전으로 작전의 시작을 준비했던 이들의 숨겨진 실화를 소재로 한다. 특히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천상륙작전의 새로운 이야기를 긴박감 넘치는 전개, 스펙터클한 볼거리로 그려낼 것이다.

또한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정재와 이범수, 그리고 리암 니슨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 역의 이정재와 인천을 장악한 인천지구 방어사령관 린제인 역을 연기한 이범수, 그리고 성공 확률 5000:1 모두의 우려와 반대에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국제연합군(UN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역의 리암 니슨의 모습이 담겼다.

세 인물의 카리스마와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아낸 티저 포스터는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속 누구도 알지 못했던 치열한 첩보작전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이끌어낸다.

특히 '도둑들', '관상', '암살' 등을 통해 연기력과 흥행성 모두를 입증한 이정재의 카리스마 넘치는 묵직한 모습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개성 있는 캐릭터,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인 이범수의 날카로운 모습은 두 인물이 빛어낼 팽팽한 대립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여기에 '데이큰' 시리즈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은 실제 맥아더 장군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는 새로운 변신, 위엄 있는 카리스마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aluem_chang@news1.kr

'비밀은 없다' 손예진X김주혁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비밀은 없다'가 손예진과 김주혁의 강렬한 변신과 15일 간의 충격적 진실, 미스터리한 사건의 비밀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오는 6월23일 개봉하는 '비밀은 없다'는 국회입성을 노리는 종찬(김주혁 분)과 그의 아내 연홍(손예진 분)에게 닥친, 선거기간 15일 동안의 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은 없다'의 스틸은 딸의 실종을 추적하는 정치인의 아내 연홍 역의 손예진과 국회입성을 노리는 전도유망한 신예 정치인 종찬으로 변신한 김주혁의 강렬한 존재감과 색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손예진은 정치인의 아내로서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부터 사건을 추적해 나가면서 불안

과 분노가 뒤섞인 모습까지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하며 극한의 감정을 넘나드는 열연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딸의 실종에도 선거에 집중하며 이성적이고 침착함으로 일관하는 종찬 역으로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도전한 김주혁의 모습이 담긴 스틸은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린 부부의 모습을 통해 '비밀은 없다' 속 두 배우의 연기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또한 밝은 표정으로 선거운동에 임하는 모습에 이어 딸이 남긴 단서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연홍과 지적이고 냉철한 종찬의 모습이 담긴 스틸은 실종된 딸의 흔적을 쫓는 15일간의 미스터리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aluem_chang@news1.kr



"유승호 사기꾼 변신"...'봉이 김선달', 7월 개봉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봉이 김선달'이 오는 7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18일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봉이 김선달'(감독 박대민)은 오는 7월 개봉한다. '봉이 김선달'은 임금도 속여먹고, 주인 없는 대동강도 팔아 치운 전설의 사기꾼 김선달의 통쾌한 사기극을 다룬 영화다.

그런 '봉이 김선달'이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최초 공개하며 그 통 큰 시작을 알렸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 2종은 '주인 없는 대동강'을 판 설화 속 희대의 사기꾼 김선달과 사기꾼의 면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선달 역의 유승호는 천재적 지략과 당대

최고의 뻔뻔함, 두둑한 배포로 조선팔도를 누비는 사기꾼의 면모를 여유 있는 미소와 눈빛으로 전하며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대동강을 팝시다", "언제나 우리가 다음에 벌일 판이 최고의 판이 돼야 해"라는 인상적인 대사와 이후 속도감 넘치는 추격신, 사기꾼을 덮치려는 거대한 물줄기로 이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봉이 김선달' 티저 예고편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올 여름을 책임질 시원하고 유쾌한 오락 영화의 탄생을 예고케 한다.

aluem_chang@news1.kr



'마음의 소리' 마지막 촬영 인증샷 공개 '싱크로율 200%'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마음의 소리'가 52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KBS2 새 예능드라마 '마음의 소리'(극본 이병훈 권혜주 김연지/연출 하병훈) 측은 18일 크랭크업 소식과 함께 마지막 촬영 인증샷을 공개했다.

'마음의 소리' 측은 "지난 17일 무사히 크랭크업을 했다. 이광수, 김대명, 정소민, 김병욱, 김미경 등의 배우들이 52일 동안 '마음의 소리'에 몰두하며 열정을 불태워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촬영에는 송중기가 대박 기운을 불어넣어줘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

혔다.

'마음의 소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무려 10년간 인기리에 연재 중인 동명의 웹툰을 기반으로 KBS 예능국, 포털 사이트 네이버, 판권을 소유한 제작사 크로스픽처스가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KBS 예능드라마 '프로듀사'를 성공시킨 서수민 CP가 제작에 참여하며 KBS예능국 하병훈 PD가 연출을 맡아 KBS 예능국 사상 첫 웹드라마에 도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nahee12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5월 9일 ~ 2016년 5월 1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7.7%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1.5%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0.0%
4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9.0%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6.9%
6	KBS1	KBS9시뉴스	16.7%
7	KBS2	해피선데이	14.6%
8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4.5%
9	KBS2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조들호)	13.0%
10	KBS1	가요무대	12.9%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2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3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4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5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6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 승리)
8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9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CHEER UP	TWICE
02	RE-BYE	악동뮤지션
03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4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Feat. 이성경)	에디킴
05	봄이 좋아??	10cm
06	우아해 (woo ah)	Crush
07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동뮤지션
08	Toy	블락비
09	Dream Girls	아이오아이
10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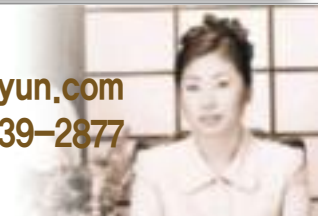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9			4		
			1	5	4			
5	4				7		6	2
2		5				3		4
	6						7	
4		7				6		9
7	9		3				2	8
			2	8	9			
		2			5			

5월 22일 - 5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운수:귀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서슴지 말고 부탁하면 그쪽에서도 흔쾌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옵니다. 확실하고 좋은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애정:불편했던 부부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게 됩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던 사람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소띠 | 후원자를 찾아야

●운수:차분한 상태에서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그 흐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후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을 만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애정: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나 이성문제에 잡념이 많아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범띠 |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수:직장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나 사업관계에서 사소한 고민이 예견되나 주말쯤에는 풀려나갈 것입니다. ●금전: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정:별거나 불화 중에 있는 기혼자는 재결합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토끼띠 | 역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운수:침체된 환경이 되더라도 기본 전환을 해서 빨리 우월한 감정은 털어 버리세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역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전:도둑이 노리고 있으니 외출 시에는 지갑 단속을 확실하고 집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애정:경솔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세요. 이성 관계에 새로운 사람의 출현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용띠 |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운수: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쉽게 얻으려고 하다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쌓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완전히 끝낼 용기가 없다면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참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뱀띠 | 앞을 대비한 투자가 필요한

●운수: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앞을 대비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8일 주의.

말띠 |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운수:주위와의 마찰이나 충돌의 위기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금전:마음의 의지여하에 따라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급할 때에는 도리어 손해가 됩니다. ●애정: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인연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양띠 | 예기치 않던 일로

●운수: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뒤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때로는 미련하게 버티세요. ●금전:예기치 않던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미룬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4일 길일. 27, 28일 주의.

원숭이띠 |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운수:계약이나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세요.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금전: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애정:흔들리던 마음을 바로잡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6일 길일. 23, 27일 주의.

닭띠 | 사랑의 힘으로

●운수: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리 원칙보다는 변칙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애정:고집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의 힘으로 해결점에 접근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개띠 | 전화위복의 기회가

●운수: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타지로 가서 능력발휘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창고에 곡식이 쌓이는 운세입니다. 경제적 수입이 대폭 늘어나며 사업에 돌파구가 생길 징조가 보입니다. ●애정: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돼지띠 |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

●운수: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큰 수확이 따라올 것입니다. ●금전: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애정: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하니 지혜롭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7일 주의.



'눈물바다' AOA, 논란 이겨내고 '굿 럭' 거머쥘까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AOA가 눈물로 속내를 전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AOA는 11개월 만의 컴백을 앞두고 멤버 설현과 지민이 역사 지식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있었다. 더군다나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차량에 관한 논란도 함께 불거져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지민은 첫인사를 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년 만에 컴백이라 정말 많이 떨렸는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시작부터 눈물을 보였다.

멤버들은 애써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도 순간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초아는 "불편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게 말하다가도 곡 제목처럼 행운이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우리 멤버들을 만나게 된 게 행운이다"고 답하며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지민과 함께 논란이 있었던 설현은 마지막에 이르러 울컥하는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 설현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앞으로 더 신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고 겨우 말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목이 뻥 목소리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거듭 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눈물과 함께 여러번의 사과로 진심을 전한 AOA가 논란을 이겨내고 제목처럼 행운을 다시 거머쥐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눈물과 함께 여러번의 사과로 진심을 전한 AOA가 논란을 이겨내고 제목처럼 행운을 다시 거머쥐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눈물과 함께 여러번의 사과로 진심을 전한 AOA가 논란을 이겨내고 제목처럼 행운을 다시 거머쥐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눈물과 함께 여러번의 사과로 진심을 전한 AOA가 논란을 이겨내고 제목처럼 행운을 다시 거머쥐게 될지 주목된다.

ppbn@news1.kr



'함부로 애뜻하게', 수지 VS 김우빈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함부로 애뜻하게' 김우빈과 수지의 강렬한 신경전이 공개됐다.

18일 공개된 KBS2 새 월화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의 영상 티저에는 톱스타 준혁(김우빈 분)과 다큐멘터리 PD 노을(수지 분)이 카메라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준혁은 "막 살거다.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 죽이고, 클럽가서 여자들도

꼬시고 매일 여자들도 바꿔가면서 잠도 자고"라고 말했다.

노을은 "방송이 장난 같아 보이냐"며 PD로서 준혁의 태도에 불만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준혁은 "나랑 연애했잖아요 PD님? 딱 3개월만. 겁나 진하게"라고 웃어보여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uu84@news1.kr

'무한도전' 웨딩싱어즈, 감동의 축하 현장 비하인드 공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멤버들의 축하 현장이 마침내 공개된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에서는 '웨딩싱어즈' 중간 점검 경연 무대와 실제 결혼식에 깜짝 등장한 멤버들의 축하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축하의 대명사 이

적과의 합동 무대를 예고한 '흥부자 커플' 유재석과 김희애의 흥 넘치는 축하 무대가 베일을 벗는다. 그리고 실제 부부로 무대에 함께 선 하하와 별은 예비부부 청중평가단에게 가장 공감할 만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에 과연 예비부부 100쌍의 실시간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경연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중간 점검에 이어 실제 결혼식에 찾아가 축하를 선물하는 '웨딩싱어즈'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섯 팀의 웨딩싱어즈는 축하를 부르기도 전에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04000 • GD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상업용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SBS	내 사위의 여자
2	MBC	좋은사람
3	KBS	별난가족
4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5	KBS	아이가 다섯
6	MBC	아름다운 당신
7	MBC	내일도 승리
8	MBC	가화만사성
9	MBC	그래그런거야
10	SBS	천상의 약속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신규 방송

1	MBC	워킹맘 육아대디
2	CJ E&M	프리한19
3	CJ E&M	쇼미더머니 5
4	CJ E&M	마세코 100일간의 이야기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최신 영화

1	날 보러와요	강예원, 이상윤
2	철원기행	문창길, 이영란

'워킹맘 육아대디' 홍은희, 육아 눈치 주는 상사에 통쾌한 한방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워킹맘, 육아대디'가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워킹맘, 육아대디'(극본 이숙진, 연출 최이섭 박원국)는 첫 방송 시청률 8.8%(TNMS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워킹맘, 육아대디'는 육아 책임이 엄마나 아빠 혹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드라마다. 내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남몰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워킹맘, 육아 대디들의 세상을 향한 외침을 그린다.

워킹맘, 육아대디'는 첫 회부터 대한민국의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과 없이 보여주며 현 시대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 상사의 눈치가 보여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이미소(홍은희 분)와 자신의 업무를 끝내고 아들 학교 행사로 반차를 냈지만 상사들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어야하는 주예은(오정연 분), 계약직 신분으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부적격 사유로 찍힌 은주의 서글픈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워킹맘, 육아 대디'는 매일 월~금요일 저녁 8시55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합법적 감금의 공포 - '날 보러와요'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합법적 감금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차용한 '날 보러와요'는 배우들의 연기 변신과 반전을 담은 줄거리로 호평을 얻고 있다. 동시기 개봉경쟁작 대비 스크린 수, 좌석수 열세에도 불구하고 좌석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 예매율 1위까지 석권하는 등 비수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영화는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납치 감금된 여자(강예원 분)와 시사프로 소재를 위해 그녀의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된 PD(이상윤 분)가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신병동에 끌려가 난데없이 구타를 당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여자 수아는 그곳에서의 일을 소상히 수첩에 기록한다. 이후 나남수 PD가 프로그램을 위해 취재를 하던 중 그 수첩에 관심을 갖고 수아를 찾아 간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수아를 가둔 자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다. 나 PD와의 심리전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무엇보다 허술한 법의 테두리를 꼬집는 치밀한 연출이 인상적이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24시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39.99

무제한 시청 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nand, y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클라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급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콘도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2Bed 1Bath 1parking
좋은 위치, 하버드 스퀘어에서 버스로 10분.

SALE PENDING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7회

활동하는 '멋진 엄마와 아내'가 가족에게는 최고!!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세상 나이 سن을 넘은 여자들이 모이면 늘 하는 말이 있다. 뭐니뭐니해도 '내 건강'이 최고야! 그것은 나만 건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엄마와 아내의 자리가 튼실해야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든든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어릴 적 생각을 떠올려보더라도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는 아프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하여, 엄마가 감기 몸살이라도 있을라치면 온 가족이 그 시간이 후로 먹을 식사부터 시작해 옷 챙겨 입는 것 그리고 아이들 학교 도시락 걱정 등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

요즘은 세 아이가 모두 학교 졸업을 하고 각자 제 길을 가고 있으니 내 일에 더 열중할 수 있어 좋다. 몇 년 전 시작했던 공부를 마무리 못 해 마음이 속상했었는데 올 3월부터 사 이버대학 대학원 코스 '상담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물론 쉽진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마무리 짓고 싶었다. 그래서 요즘은 몸과 마음이 바쁘게 빠른 발걸음으로 산다. 물론 남편의 도움과 후원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예전에 쓸데없

는 물건 사들이기에 바빴던 시간과 돈을 글 쓰는 일과 공부와 운동에 쓰니 남편도 싫지 않은지 곁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어 고맙다.

여가 시간이란 따로 떼어진 시간이 아니라 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 그 밖의 일터에서 해야 할 몫을 챙길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인 까닭이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나이 50 중반을 맞고 보낸 여자들의 일상은 비슷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던가. 가정이나 직장도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자식들은 모두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을 때쯤이니 은퇴준비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사는 때이기도 하다.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주말의 시간을 이용할 것이며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도 하루 이틀 정도는 쉬며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

가끔 골프를 같이하는 아는 지인(언니)이 얘기를 들려준다. 세상 나이 60 정도가 되면 남편도 집에서 어서어서 밖으로 나가 운동하라고 엉덩이 떠밀어 준단다. 그것은 서로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부부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이른 시간 골프를 나오려면 바쁘지만, 남편의 아침거리를 간단

하게라도 챙겨놓고 나온다고 말이다.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직장도 잡고 그러다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면 그저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아껴주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선물이라고 말이다.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많아서 여가 시간에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산을 오르거나 자녀와 함께 산을 오르면 더욱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마음의 정성을 더욱 다하는 것이다. 골프와 헬스도 마찬가지다 어디 그뿐일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호수를 산책하는 일도 시간이 넉넉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바쁜 일정 중에 건강을 위해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까닭이다.

세상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처한 상황의 생계를 위해 바쁜 일정에 쫓기는 이들도 많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경우에 놓였는가

에 따라 모두의 색깔과 모양은 다르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이지 않던가. 우리는 모두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무게'는 존재한다. 그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와 탓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흘러보내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멋진 엄마와 아내'가 가족에게는 최고다!! 자식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끊임없는 칭찬을 나눠주는 엄마로서 남편에게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어진 아내로서 살 수 있기를 오늘도 마음을 모아본다. 그래도 늘 고마운 것은 엄마가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 가끔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마저도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세 아이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로 격려자로 늘 곁에 있는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자신의 건강도 잊은 채 아내의 '갱년기'를 염려하는 남편에게 오늘은 더욱 고마운 날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한 여름밤의 개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일장춘몽一場春夢. 한바탕 봄꿈이란 직역이다. 부귀나 영화도 모두 덧없다는 의역이다. 장자莊子에나 어울릴만 하지 않다. 봄이 당기는 낮잠도 나른하다. 당신은 이봄 무슨 꿈을 꾸시는가? 그런데, 나른한 봄꿈을 꾸기전에 이미 여름이 닥친듯 싶다. 날이 여름마냥 더우니 말이다.

전직 한국 대통령은 꿈을 꾸지 않는다 했다. 깊은 잠을 자기 때문이라는 거다. 대단한 분이다. 그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강연하게 됐단다. 어린이 하나가 물었다. “어려서 꿈이 무엇이었나요” 대통령의 대답에 모두 넘어졌다.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꿈이 없다.”

내 꿈은 무엇이었던가?

나대로 살고싶다
나대로 살고싶다
어린 시절 그것은 꿈이었었는데
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이 드니 그것은 절망이로구나
(김승희, 꿈과 상처)

나만 그런 줄 알았다. 중년에게 악몽이 자주 있는 모양이다. 한국군대를 제대하고도 한 십여년을 이따금 악몽에 시달렸다.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인게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칠 즈음이었다. 한창 논문준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날 밤 꿈을 잊을 수 없다. 선임하사가 찾아 왔다. 푸른 군복에 그 복색 그대로였다. 문앞에서 서서 그가 말을 꺼냈다. “교련

혜택이 취소됐다.” “혜택받은 몇개월을 채워야 한다.” “지금 당장 돌아가자.” 꿈속에서도 황당했다. 혹시나 했는데, 꿈속에선 현실이 되어 돌아 온거다. 내가 통사정했다. “논문심사를 끝내고 가면 안되겠느냐.”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 “어떻게 지금 당장 돌아갈 수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몇개월 혜택 썩썩했다” 하소연과 변명, 통사정을 늘어놨다. 그의 대답이 단호했다. “안된다. 지금 당장가야 한다.” 그날 밤 개꿈은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였다. 집앞 나무가 한창 푸르른 날이었다.

수십년전에 꿔던 꿈이 아직도 선명하다. 꿈에서도 궁금한게 있었다. 내 미국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에서 미국 촌까지 여행이 쉽지 않았을 텐데. 몇개월 채우고 나오는데 그

닥 어렵지 않다. 그런데 뭇하러 선임하사를 일부러 보냈을까. 국법이 엄중하기는 대단히 엄한가 보다. 한국군대 대단하다.

사족이다. 제대하고 한달이나 지났을까.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는 밤이 잦았다. 빗소리 들리면,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났다. 군대 시절, 한 여름밤이면 빗줄기속에 강물에 몸을 담가야했다. 배를 인양하는 작전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밤이면 빗방울은 굵고 차가웠다. 제대 한 후에도, 비오는 밤이면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혼몽한 상태로 견딜 수 없었던 거다. 그 해 장마는 길었고 지루했다.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19)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ING
PLASTIC SURGERY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이후 가임,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선두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관리관리까지 전문의가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운영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걸쳐 첨단 장비로 완벽하게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실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는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재수술 관리로 빠른 회복과 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각국이 성형 전문이길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지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7년간
대한성형외과 학회 17년
대한비대칭성형외과 학회 17년
대한안면근육학회 17년
대한안면신경학회 17년
대한안면피부학회 17년
대한안면노화학회 17년
대한안면미용학회 17년
대한안면비대칭학회 17년
대한안면비대칭학회 17년



리본성형외과
RIBON PLASTIC SURGERY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80만원

※ 부가세 별도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비유외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가가오독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6)

아파치 인디언의 최후

아파치 인디언에 관한 악의적인 신문 보도를 그대로 믿었던 당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제로니모 일당을 교수형에 처할 생각이었다. 아파치 인디언들이 당한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극형은 면할 수 있었다. 아파치 포로들은 플로리다의 펜사콜라(Pensacola)에 있는 피킨스 요새(Fort Pickens)에 수감되었고, 그 가족들은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에 있는 마리온 요새(Fort Marion)에 수감되었다. 마리온 요새는 17세기 후반에 스페인 군대에 의하여 건설되었는데 스페인 시절에는 산 마르코스 성채(Castillo de San Marcos)로 불렸다. 그들은 열차의 가축수송용 화물칸에 태워져 플로리다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두 명(Massai and Gray Lizard)이 세인트 루이스 근처를 지날 때 열차에서 뛰어 내려 1900km를 걸어서 애리조나로 돌아갔다고 한다. 제로니모 무리뿐만 아니라 제로니모를 잡으러 갔던 용병을 포함하여 수많은 치리카우아 인디언들이 플로리다 감옥에 투옥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서 떼어내어 펜실베이니아에 있던 칼라일 기숙학교(Carlisle Indian Industrial School)로 보냈다. 심지어 에스키민진을 포함한 40명의 아라바이파 아파치들도 플로리다로 끌려갔다. 제로니모 무리들은 1887년 5월에 엘라배마의

Mount Vernon Barracks로 이감되었다가 1894년에는 다시 오클라호마의 실 요새(Fort Sill)로 옮겨 갔다.

아라바이와 부족은 수감생활을 끝내고 옛
주거지역이었던 산 카를로스로 돌아올 수 있
었지만 치리카우아족은 위낙 백인들의 미움을
사서 애리조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메스칼레르
족의 거주지역으로 일부가 돌아오고 또 일부
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수감되었던 오클라호
마 지역에 남아 있기를 원하였으나 거주공간
을 구할 수가 없었다. 아파치족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코만치 족과 카이오와 족이 아파치
족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들의 거주지역의
일부를 내어주어 같이 살게 되었다. 여타의 아
파치 인디언부족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디언보
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반하여 끝까지
백인에 대항하여 싸웠던 치리카우아 아파치족
은 변변한 주거지역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
다. 우리나라에서도 항일 독립 투쟁에 헌신했
던 선조를 가진 후손들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
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과 조
금은 닳은 점이 있는 것 같다.

제로니모가 남긴 유산

제로니모의 본명은 아파치어로 고야틀라이(Goyathlay)이다. 이름의 뜻은 ‘하품하는 사람’ 이라고 한다. 1829년에 태어나서 1909년 2월 17일 오클라호마의 실 요새 감옥에서 죽었

다. 구술에 의한 그의 자서전 (Geronimo's story of his life)이 1906년에 발행되었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가진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다닌다. 아파치의 눈에는 전설적 영웅으로 보일 테지만 백인의 눈에는 악마로 보였을 것이다. 옹고 그림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니 판단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이다. 제로니모가 죽인 백인이 몇 명인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하듯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좀 과장해서 몇 천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략 천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911 테러의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잡기 위한 작전에서 빈 라덴에게 제로니모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잘 알다시피 빈 라덴은 911테러로 3000명에 가까운 무고한 생명을 뺏어갔다. 빈 라덴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할지 모르나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는 치가 떨리는 악마였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23년을 포로로 지냈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1901년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되었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박람회에 구경꺼리로 전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너무 초라했다. 그가 만든 활을 시장에 내다판 돈으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오다가 마차에서 떨어져 추운 날씨

에 얼어 죽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음감의 상징으로 흔히 이용된다. 다이빙 직전에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하여 ‘제로니모’ 라고 외치기도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낙하산 부대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제로니모’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파치라는 이름도 비슷한 상황에 쓰이는데 ‘아파치 헬리콥터’ 는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갖춘 미군의 주력 병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10월 18일에는 미국 우편당국이 ‘서부의 전설들’ 시리즈 중 하나로 제로니모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제로니모(Geronimo)〉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1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을 마지막으로 신라의 성골은 사라졌다. 그때부터 진골의 시대가 열렸다. 그가 바로 제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 진지왕 김사료의 손자이다.

7일 밤낮으로 도화녀와 정사情事를 나눈 진지왕의 흔이 홀연히 사라지고 도화녀는 임신을 하였다. 달이 차서 해산할 때는 천지가 진동하며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비형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진평대왕이 그 특이함을 듣고 비형량을 궁중에 데려다 길렀다. 나이가 15세가 되자 집사執事의 벼슬을 주었는데, 밤마다 멀리 도망가서 놀았다. 왕이 용사 50명을 시켜서 비형량을 지키도록 했으나 매번 월성月城을 날아서 넘어가 서쪽의 황천 언덕 위에 가서 귀신들을 데리고 놀았다. 용사들이 숲 속에 엎드려 엿보니 귀신들이 여러 절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각각 흩어지자 비형량도 돌아왔다. 군사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비형량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귀신들을 데리고 노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니, 비형량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귀신들을 시켜서 신원사神元寺 북쪽 도랑(또는 신중사神衆寺라고도 하지만 잘못이다. 또는 황천 동쪽의 깊은 도랑이라고도 한다)에 다리를 놓아라"고 하

자비형량은 왕의 명을 받아 귀신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그러므로 '귀교鬼橋'라고 불렀다.

왕이 또 묻기를 "귀신의 무리 중에서 사람으로 출현해 조정의 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니, 비형량은 "길달吉達이란 자가 있어 가히 나라의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함께오라!"고 했다. 이튿날 비형량은 길달과 함께 왕을 보니 왕은 길달에게 집사의 직위를 주었는데, 과연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이때 각간 임종林宗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이 명령해 뒤를 이을 아들로 삼게했다. 임종이 길달을 시켜서 흥륜사興輪寺 남쪽에 누문을 세우게 했더니 그는 밤마다 그 문 위에 올라가 자므로 이를 길달문이라 했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도망가버리자 비형량이 귀신을 시켜서 잡아 죽였다. 그리하여 귀신의 무리들은 비형량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하여 달아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글을 지었는데 이렇다. {성제聖帝의 혼이 낳은 아들 비형량의 집과 정자로다. 날고 뛰는 여러 귀신의 무리들아 이곳에 머물지 마라} 나라의 풍속에 이 글을 써 붙여서 귀신을 물리쳤다.]

죽은 진지왕의 혼에서 태어난 아들 비형량은 귀신을 부릴 줄 알았고 귀신들까지도 두려워

위 하였다. 이는 비형량의 능력이 그만큼 신비하다는 것을 말한다.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에게 김용춘 또는 김용수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화랑세기에는 다른 인물, 형제로 나온다). 일부 학자들은 이 비형량과 김용춘을 동일 인물로 본다. 즉 결혼한 화랑도花郎徒 김용춘의 활약상이 설화로 변해서 비형량의 귀신 부리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본다. 김용춘은 사촌인 진평왕의 딸인 천명부인과 결혼했고, 진평왕 44년(622년)에 내성사신이 되어 진평왕대 후기에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즉 아버지 진지왕은 폐위되었지만 '사륜계'의 세력은 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춘추는 제29대 무열왕이 되면서 할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된지 75년 만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통일신라는 전성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내 떡,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 (5)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IX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은 '베르텔 바르데츠키(Barbel Wardetzki)'의 책 '여자의 심리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베르텔 바르데츠키는 여성적 나르시시즘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르시시즘은 넓은 의미에서 ‘자존감’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여성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과 의존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일절 거부하며,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남성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남성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본다. 혹은 적어도 자신이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속이 후련해진다.”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은 자존심에 가까울까? 자존감에 가까울까? 자존감을 지키는 나르시시즘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자라게 되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강도에 따라 병리적인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의미를 착각하기 쉽다. 자신의 생의 의미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삶이요, 자신의 생의 의미를 남이 주는 평가에서 찾으려 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살아간다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있는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한다. 만약 자신이 실수를 했지만 남

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존감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겉에 드러난 힐러리는 매우 당당하고 자주적이다. 이 모습은 그녀의 참 자아일까? 거짓 자아일까? 어릴적부터 매우 총명했던 힐러리는 그녀의 부모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 알마 본드는 ‘힐러리’라는 책을 통해 힐러리는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완벽한 딸이 되기위해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제하며 자라났다고 한다.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존재가 부모의 위상을 드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부모가 주는 찬사와 인정, 칭찬 등으로 자기애를 만족시키는 사랑법에 길들여진다. 이 사랑법은 부모의 나르시시즘에 의한 착취이다. 자신의 특정 성격, 능력, 행동양식이 자신의 성향이 아닌 부모의 성향에 의해 억지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행복한 모습, 착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모습,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모습, 완벽한 모습, 성공한 모습 만이 허용한다면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표현(불만, 슬픔, 분노 등)은 무시되고 억제당하는 것이다. 좋은 감정만 허용되며 한쪽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알마 본드에 의하면 힐러리는 자신의 나쁜 감정을 부모에게 까지 보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 힐러리는 이미 어린시절부터,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참 자아를 숨기고, 거짓 자아를 쓰는 모습을 터득했던 것 같다.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기가막히게 변화시켜왔다. 시대와 상황에 맞서 싸우

기 보다 시대에 의존하면서 자신을 자립을 키웠다. 그 의미는 자신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기를 맞추었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좋아하는 딸로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처럼 그녀는 남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켰다. 한 예로, 힐러리가 태어난 40년대 후반의 미국은 남자의 업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삶이 더 지향적이었다. 힐러리가 입학하던 1965년에도 이러한 성향이 계속되었다.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등 아이비 리그에 충분히 입학할 만큼 똑똑했던 힐러리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성향을 따라 가장 똑똑하다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웰슬리 여자 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힐러리는 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하였고, 웨슬리 대학의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졸업생 연설의 연사로 발탁되어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성공 신화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던 여성과 흑인의 인권 문제 등 민주당이 주로 얘기하던 진보적인 태도를 피력했다. 당돌한 여성 학생회장의 졸업 연설에 언론은 즉각 반응했고, 라이프지에까지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참 자아의 야망이 잠시 드러났던 시기였다. 그 이후, 예일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변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의 야망이 허용되기 보다 남자가 우대되던 70년대의 시절에 부응하여 남편인 빌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에 힐러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 예로 힐러리가 결혼 뒤 자신의 성인 로망을 유지했지만 나중에 빌의 주지사 재도전 때 자신의 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성을 클린턴으로 바꾸었다. 또한 자신의 세련되지 못한 외모가 남편 클린턴이 주지사 재선의 실패의 원인이라 여기자 아홉 살 부

터 고집했던 두꺼운 근시 안경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외모가 대중의 지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터득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타일의 중요성은 가족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웰슬리 대학과 예일 대학도 내게 주입시키지 못했다. 당신의 스타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더불어 당신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꿈도 말해 준다.” 라고 말 할 정도였다.

힐러리의 웰슬리 여자대학 선택, 자신의 큰 야망에도 불구하고 남편 빌의 정계입문을 대신하며 자신의 성을 포기했고,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외모의 추구 등은 힐러리의 자존감이 자신보다 남, 대중의 시선에 초점이 계속해서 맞추어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결핍, 나쁜 감정 표현의 능력 상실, 거짓자아로 살아온 외로움과 아픔을 과도한 성공의 집착, 완벽주의, 지나친 독립심, 강인함, 쉴 새 없는 활동으로 대중이 주는 찬사, 경제적인 충족감, 정치계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한 것이다.

힐러리가 자신의 참 자아와 가까운 자존감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르윈스키 스캔들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다고 본다. 그때 힐러리는 뉴욕주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어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 선출됐다. ‘정치인 힐러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참 자아를 잠시 보였던 웰슬리 대학 연설 이후 31년이라는 세월을 억눌렀던 정치적인 야망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참 자아가 드러난 것이다. 다음 칼럼을 통해,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을 마무리 짓기로 한다.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배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정결히
모든 교인은 가정에서 순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권지영생장로교회에서:-
비국장로교 부속인 노회 수권으로
이웃을 섬기실 제 7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려고사 하오니 양해하는 기쁨의 사제로
이러분을 성중령으로 축복합니다.

일시: 2016년 5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권지영생장로교회 본당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및 교우 임명

권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

이교주 목사 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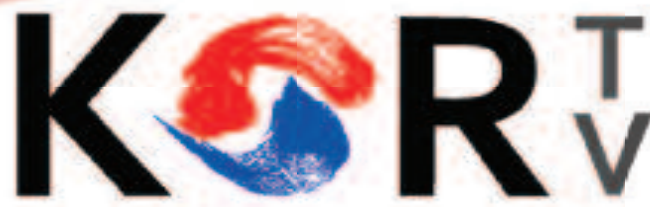
평신도 전도사/대리인

Pittsfield Seminary (MA, 선교사)

Northwestern University (Illinois, 선교사)

Trinity Evangelical University School (Illinois, 선교사)

본 교세스카 헌정 장로교회 담임목사



아직도 이름 없는 저가셋톱박스를 쓰십니까?
아직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법 방송을 보십니까?
아직도 한국방송을 VOD만 보고 계십니까?



믿을 수 있는 **애플 TV**를 통해.
한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고화질 전용망으로 보는 **합법 한국 방송!**
월 \$19.99에 한국 방송 **30개 채널**을
한국과 똑같이 보는 애플TV! KORTV!

채널안내

유료 채널 - jtbc, KBSWORLD, MBN, YTN, KBS Latino, TV조선, new Y, K-star, event TV, jtbc GOLF, etn k-pop, 바둑TV, OGN KORTV KIDS

무료 채널 - jtbc, KBSWORLD24, ETN, 육아방송,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arirang tv, 인천 N 방송, KTV, STB상생방송, BBS, CBS, KORTVguide, KORTVCulture

서비스 가격 및 패키지 할인 가격 (TAX 포함)

서비스플랜 (Plan Type)	1개월 기본시청료	6개월 선불 할인가격 (0.5개월 할인)	1년 선불 할인가격 (1.5개월 할인)
유료채널 실시간 방송패키지	US\$19.99	US \$109.95	US \$209.90
다시보기(VOD) 방송패키지	US \$9.99	US \$54.95	US \$104.90
유료채널+다시보기 방송패키지	US \$29.98	US \$164.90	US \$314.80



4월 부터는 CCTV를 비롯한 중국방송 10채널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MBC 드라마 채널, SBS Golf 채널등 채널은 계속 추가 될 예정!



판매문의

617.996.0949

설치문의

617.996.0949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3)

'팝의 전설' 프린스 사망

미국 '팝의 전설' 프린스(57)가 사망했습니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인 프린스는 7개의 그래미상을 받고 1억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미국 팝의 전설입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첫 노래를 작곡했고 198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과 함께 세계 팝 음악의 주도한 천재 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프린스의 자산은 \$300 million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언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유산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생존하는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에게, 자식이 없으면 부모에게, 부모가 생존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에게 유산됩니다. 현재 여동생이 유산청구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며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친구들도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에 상속 변호사를 만나

서 상담하면 당연히 트러스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등 상속계획은 주 정부에서 일하는 상속 변호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 정부마다 상속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기본적인 상속 정보를 설명하여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2016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5.45 million까지 연방정부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두 배인 \$10.9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일반 사람 대부분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 정부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방정보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사는 주 정부 상속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금융자산은 기록된 상속수혜자(Beneficiary)에게 상속 재판을 가지 않고 바로 상속됩니다. 한 예로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가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유언장은 나를 항상 반겨주는 '강아지 이름'이 작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수혜자가 유언장보다 우선(Supersede)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산이 아닌 은행에 있는 돈은 상속수혜자와 비슷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Paid on death beneficiary, Transfer on Death (TOD) 등을 작성하면 상속이 바로 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상속은 상속재판을 통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시간(MI)은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아이들을 금융자산처럼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레이디 버드(Lady Bird)'라고 합니다. 상속수혜자 설정은 간단하므로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캘리포니아(CA)도 부동산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2016년 1월 통과되었습니다. 영어로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이며 상속수혜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으면서 부동산이 상속절차 없이 바로 수혜자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할 수 있는 부동산은 집이나 콘도 등 거주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설정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참전을 준비해서 마련한 세법입니다. 사실 미국에 있었던 두 전쟁 (Civil War & Spanish-America War) 때도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은 전체 세수에 1.4%입니다. 2016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4,400명이라고 한 기관(Tax Policy Center)에서 말합니다. 남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한 후 상속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부동산 경매를 통한 집 구입

최근 들어 은행들이 많은 압류주택들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바이어와 직접 매매를 통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고 숙지해야 성공적인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다.

경매 주택들은 'As is' 다: 은행들이 매물로 내놓는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As is'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주택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종 매물에 전기나 수도가 끊긴 경우도 있고 지붕에 물이 샌 흔적이 있어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

현찰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에, 은행융자 승인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찰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매확정 가격에 수수료를 추가 부과한다: 대부분의 경우 5%의 경매수수료를 바이어에게 부과한다. 만약 경매가 30만달러

라면, 바이어는 1만500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총 가격은 31만5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Condo Fee나 HOA Fee의 연체: 차압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콘도비, HOA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은행측에서 세틀먼트 전에 완불한다.

세금연체: 밀린 세금이나 연체비용은 은행측에서 해결해 준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바이어가 고용한 타이틀 회사가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집문서의 이름등기: 많은 은행들이 경매를 통해서 바이어가 나타나기 전에 집문서를 은행 앞으로 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종종 집문서를 조사해보면, 아직까지 셀러의 주체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은행측에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적극적이지 않다: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경매회사가 주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하다 싶

을 정도로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일반매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커미션도 무시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경매회사의 담당자는 단순 직원이다: 집을 팔아서 이윤을 올려서 신이 나는 일반 셀러와는 달리, 경매회사측의 셀러는 단순한 셀러리맨이다. 즉 이 집을 빨리 팔든 더 비싸게 팔든 자신의 월급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구태여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담당자들도 판매 프로세스 중에 바꾸기도 한다. 한 케이스를 끝내기까지 2-3명의 프로세서로 바뀌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에 진행도 매끄럽게 빨리 진행되지 못한다.

바이어의 세틀먼트 회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은행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세틀먼트 회사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바이어는 자신들만을 위해주는 회사를 선택해야 모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한

주택구입도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www.BoKoMart.com



LA CENA 후라이팬 4종

금중판 2개+후라이팬 1개+뚜껑

디미아폰트 코넬보다 한 자를 앞 선 박병식(서울대)도 코닝기술로 오히려 그라픽 효과의
완벽을 질과 코넬은 그 인공적인 세로와 후드티머스

~~\$169~~

109

**맘스쿨 건강식 마스터**

257쪽에서 독4인 무의미로 스쳐가게끔 구성되어 있음.



25분
요리완성

\$179

\$129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본래에 구해주시고 원금의 20%이상 회신하지 않은 자는 30%의
원금에 대한 교집합 내외에 교집합은 모두 0.5%의 0.5%로
유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210

NEW
냉채잡는
COOKING 3 IN 1
BURNING HOT COOKER
쿠폰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을 위한 조리법...
집안에 음식냄새가 잔잔히 배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조리법...



전골 코뎀



사각 그림코판



해방 되십시오!
홍사 님께 안녕-
카페 지나에서 생선 그릴은

999

75



905 78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BOKO
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KoMart.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몸의 기억: 우변 식수 오염 사건과 대중 역학 (Popular Epidemiology)

독성 화학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러브 커널 사건(보스톤코리아 5월 6일, 13일자 칼럼 참조)이 미국 대중에게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9년 5월 22일, 매사추세츠주 이스트 우변의 식수 공급원인 우물 G와 H가 폐쇄되었다. 식수의 독성 화학물 오염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던 탓이다. 그해 가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질병 통제 본부 (CDC)에 식수의 오염과 백혈병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이듬해 초,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조직인 '더 깨끗한 환경모임' For A Cleaner Environment (FACE)가 결성된다. 1991년 이 지역이 수퍼펀드 지역으로 지정되어 식수 오염에 원인을 제공했던 대기업들에게 총 6,95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때까지 십 년이 넘게 진행될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1972년 지미 앤더슨이라는 5세 소년이 매우 희귀한 소아암의 일종인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얼마 후, 지미의 엄마인 앤 앤더슨은 이웃들 중에서도 그녀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희귀한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이 다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앤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도나 로빈슨의 아들 로비도, 앤의 거주지와 꼭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조나의 아들 마이클도, 또 다른 이웃인 튜미의 아들

패트릭도 모두 백혈병, 그것도 희귀하고도 치명적인 종류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앤 앤더슨 주변에서만도 무려 열두 명의 아이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 중 여덟 명의 아이들은 반경 1/2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그 중 여섯 명의 아이들은 거리가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 (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79년까지 15년동안, 당시 인구 3만 6천여명의 도시 우변에서 무려 28명의 아이들이 이 희귀한 소아 백혈병에 걸렸다.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는 이 '우연'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앤 앤더슨은 그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웃 아이들이 먹는 물이 같다는 대목에서 우변의 식수에 주목하게 된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우변의 주민들은 수도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색깔도 탁하다고 호소해왔던 터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우변시는 외면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

1979년 어느 날, 납, 크롬, 비소 등의 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184개의 드럼이 이스트 우변 지역에 식수를 대부분 공급하는 우물 G와 H 근방에 폐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역신문인 우변 타임즈에 의해 보도되었다. 같은 해 5월, 우물 G, H가 수질 검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 결과 드럼통에서 흘러나온 화학

물질들과 동일한 납이나 비소 등이 수도물에서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음용수 속에 발암성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 (TCE)을 비롯한 유기 화학용제가 다량 검출되었는데,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지하수의 TCE 오염은 신경 이상, 세포 변이, 간손상, 그리고 암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동물실험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문제의 우물들은 폐쇄조치에 처해진다.

같은 해, 우변 지역의 암 사망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주민들이 '의구심'을 넘어 '조직의 행동'을 개시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리하여 1980년 초엽 '지미 엄마' 앤 앤더슨, 지역 목사 브루스 영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주민의 모임이 바로 FACE였다. FACE의 압력에 의해 매사추세츠 환경국 EPA는 지하수의 흐름을 추적하고 언제, 어떻게 우물 G와 H가 오염되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공중보건국 (DPH)은 CDC의 도움을 받아 백혈병 발병과 식수 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DPH는 식수의 오염이 백혈병 발병-사망률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유독 높은 백혈병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 주민들 사이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정부,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은 정부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1981년 11월,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 연구자들이 FACE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버드의 연구자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은 300명의 우변 커뮤니티의 봉사지원자들이 우변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3,257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결과를 찾아냈다. 지역주민과 과학자들의 공조는 당시 보스턴 글로브지의 표현을 빌자면 "환경-건강 영향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파트너십이었다. 결국 1984년 2월 8일, FACE-하버드 팀은 우변의 환경 오염이 소아 백혈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 신생아 사망을 일으키고, 구개열, 다운 증후군등의 선천성 기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혔다.

우변의 주민들은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공중 보건 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역학적 조사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었다.

(다음 주에 계속)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저작권은 사람의 전유물- 인간을 창조한 신에게도 저작권은 없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오랜 시간 만들어 낸 해안 절벽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장난을 쳐 놓은 듯 솜사탕 처럼 뭉치고 깃털처럼 흩어져 있는 하늘의 구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만들어 낸 모래 위 물결 자국을 보면 파도만한 예술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벽과 암석들을 보고 어떤 조각 공원에서든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풍경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들 쉽게 "거기에 무슨 저작권이 있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꽤 가까운 동물인 원숭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원숭이도 다른 동물들처럼 종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아시아산 원숭이 중에 하나인 마카크 (Macaque)원숭이는 예술성이 뛰어나거나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마카크 원숭이가 찍은 "셀피(Selfies, 한국에서는 셀카라고 많이 합니다)"에 대해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

고 미국의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서는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 사진가인 David Slater는 2011년 인도네시아의 Sulawesi섬에 가서 멸종 위기에 처한 마카크 원숭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와 나뭇지 촬영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숭이들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찍힌 사진들 중에 아래 사진과 같이 아주 훌륭한 사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셀피보다 훨씬 예술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아는 놈들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Wikimedia라고 하는 비영리단체가 원숭이가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놓고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므로 사진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가인 Slater는 이 사진이 찍힌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이고 원숭이는 보조 (assistant)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은 사람이 창조하고 만든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 동물, 식물이 만들어 낸 작품 (Works produced by nature, animals, or plants)" 혹은 "신성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것 (Works purportedly created by divine or supernatural beings)"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예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저작권청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 코끼리가 코에 물감을 묻히고 그린 그림, 바다에 깎인 해안 절벽의 모습, 파도가 만든 모래사장의 물결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다가 해안 절벽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해안 절벽을 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그 사진가는 자신

의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어느 날 창조주가 나타나 사람에게 대한 저작권을 요구한다면 인류는 "파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저작권청은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신적인 영감에 의해 창조된 작품 (Works inspired by a divine spirit)"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창조주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표현했다면...저작권이 보호되겠습니다.

** 독자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URAM
HUMAN RESOURCE MANAGEMENT



● 꼭 필요한 용산의 보양식이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용산● 다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인기 관광지로써 최고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내 최고의 관광지 여행입니다

-

● 附合、標準、平均



미국 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턴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책을 시험문제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교육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턴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